

석사학위논문

조선시대 제주지역
방어시설의 학습지도방안
- 초등학교의 향토사 교육과 관련하여 -

지도교수 권 인 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장 재 훈

2004년 7월

조선시대 제주지역
방어시설의 학습지도방안

- 초등학교의 향토사 교육과 관련하여 -

지도교수 권 인 혁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7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제출자 장 재 훈

장재훈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4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문 초록>

조선시대 제주지역 방어시설의 학습지도방안

장 재 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지도교수 권 인 혁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향토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이미 시대적인 요구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지역화의 한 축으로 향토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 지역의 향토 문화재 자료 중 천연기념물과 더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군사방어시설 가운데 성곽을 학습 자료로 삼아 교육과정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현장학습을 통한 향토사 학습 자료의 지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으로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7차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문화재 관련부분을 살펴보고 이론적 배경으로서 향토문화재와 현장학습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곽의 기원과 특징을 살펴본 후 문헌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도 성곽의 기원과 특징을 3읍성·9진성·환해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향토자료를 적용할 수 있는 관련단원 및 학습요소를 추출하고, 지도목표를 설정하여 지도안 및 지도 자료를 제작해 보았다.

본고에서 제시한 조선시대의 군사방어시설의 지도방안은 다만 가능성을 전제로 시범적으로 접근해 본 것에 불과하며 또한 학교 여건상 실제로 적용해보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며 실제로 적용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학습이 항상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태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사의 자세가 갖춰졌다면 현장학습을 통한 향토사 학습은 성공적인 것이다. 아울러 본고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교사 개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향토사 지도 방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목 차

I. 서론	1
II. 제7차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향토 문화재 학습	3
1. 제7차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문화재 관련 부분	3
가. 성격	3
나. 목표	3
다. 내용	4
2. 향토 문화재 학습의 의미와 교육적 활용	4
가. 향토 문화의 의미와 교육적 기능	4
나. 향토 문화재 교육의 새로운 방향 및 유의점	9
다. 향토 문화재 활용에 있어서의 현장학습	13
III. 한국과 제주 성곽의 비교	22
1. 한국성곽의 기원과 종류	22
2. 제주 성곽의 기원과 특징	33
가. 3읍성	40
나. 9진성	45
다. 환해장성	56
IV. 제주 지역 성곽의 지도 방안	57
1. 교과서 관련단원	57
2. 제주 지역 성곽 지도의 실제	62
3. 지도자료	70
V. 결론 및 제언	83
참고문헌	85
Abstract	87

표 목차

<표 1> 제7차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문화재 관련 내용	4
<표 2> 지정문화재의 종류	6
<표 3> 제주지역 성곽의 축조시기	34
<표 4> 단원의 목표	57
<표 5> 향토사 관련 내용	56
<표 6> 향토사 내용 요소의 유형별 정리	58
<표 7> 현장학습지도계획	62
<표 8> 현장학습계획서	64
<표 9> 사전활동 교수-학습 과정안	65
<표 10> 현장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66
<표 11> 현장학습 활동지	67
<표 12> 사후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68
<표 13> 자기평가지	69

I. 서론

초등학교 사회과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의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에 초등학생에게 알맞은 사회과 학습은 ‘현재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즉 ‘지금’, ‘여기’, ‘이것’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학생이 살고 있는 고장, 향토, 지역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과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역화이다.¹⁾

초등학교 사회 교과 중 역사학습에서 지역화의 정신을 살려 학생의 주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조직하여 교육할 수 있는 학습이 향토사 학습이다. 향토사 학습은 초등학생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역사를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증대시키고, 자기 고장의 삶의 연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신장시키며 향토인의 삶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나아가 애향심을 기를 수 있다.

더욱이 과거의 중앙집권적 형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각 지역별로 향토사 연구가 활발해졌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자신과 가까운 향토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며 향토 역사를 통하여 지역적 긍지를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계에서 연구된 향토사를 토대로 향토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토사 학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향토의 전통·역사에 관련된 객관적인 기초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홍보책자와 유인물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초등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을 주기는 했으나 시간적 여유와 자료의 불충분 등으로 기피

1)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사회 (6-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p. 40.

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을 단지 교과서에만 의존하여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토사 학습을 위한 교재나 방안의 제시는 가치 있는 일이며 사회과 학습 지도에 많은 편의성을 현장의 교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부응하여 결국 사회과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 지역의 향토 문화재 자료 중 천연기념물과 더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군사방어시설 가운데 성곽을 학습 자료로 삼아 교육과정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학교현장에서의 지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과 향토문화재 교육

1. 제7차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문화재 관련 부분

가. 성격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의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생활과 관련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²⁾

나. 목표

1)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장소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파악하며, 고장·지방 및 국토 전체와 세계 여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2) 각 시대의 특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우리 문화와 민족사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류 생활의 발달 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을 파악한다.

3)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4) 민족 문화 및 민주 국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2) 문화재청, 《문화재 교육의 이론·방법 및 실제》, 다원, 2000, p. 59.

다. 내용

<표1> 제7차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문화재 관련 내용³⁾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인간과 공간	• 고장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과의 관계	• 우리 지역의 모습		
인간과 시간	• 고장 생활의 변천 • 고장의 문화적 전통	• 옛 도읍지와 나라들 • 박물관과 문화재	• 문화 전통의 계승	• 민족 문화의 발달
인간과 사회	• 고장의 여러 기관과 단체			

(※. 향토사 학습 적용을 위한 지역화 관련 내용)

2. 향토 문화재 교육의 의의와 활용

가. 향토 문화재의 의미와 종류 및 교육적 기능

1) 향토 문화재의 의미

향토란 통상적 개념으로서 고향, 고장을 의미하며 인간이 출생하여 성장하면서 인격 형성과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모체가 된 지연사회를 말한다. 이것은 자신과 생리적 연고가 깊은 좁은 의미의 향토를 말하는 것이지만, 보다 깊은 사회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향토를 사회적 개념, 즉 넓은 의미로 보면 지역사회라 할 수 있다.⁴⁾

문화재란, 독일어 ‘Kulturguter’의 번역어로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문화의 유산이다.⁵⁾ 문화재는 그것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 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를 창조해 낸 집단이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중요한 것이다. 문화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표현

3)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 14.

4) 강창렬, “향토 문화재 활용을 통한 국사 학습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p. 4.

5) 문화재청, 앞의 책, p. 15.

뿐만 아니라 구전, 음악, 인종학적인 유산, 민속, 법, 습관, 생활양식 등 인종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의 네 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①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과 같은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②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민속놀이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킨다.

③ 기념물은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窯趾)·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식물(자생지 포함)·광물·동굴로서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④ 민속자료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 국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불가결한 것을 가리킨다.

2) 문화재의 종류

가)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자료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이며, 시·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가운데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이다. 그리고 문화재자료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향토 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지정문화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2> 지정문화재의 종류⁶⁾

유형별 지정권자별	유형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			무형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국보	보물	중요 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무형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지방유형문화재		지방 민속자료	지방기념물			지방 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문화재자료						

▷국보 : 보물에 해당되는 문화재 중에서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다. 물론 가치의 크고 작음을 가늠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나 유례가 드문 것, 즉 독특하고 희귀한 것은 국보로 한다.

▷보물 : 목조건축물·석조건축물·전적류·서적류·고문서·회화·조각류·공예품·고고자료·武具 등의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국보와 보물의 중요성과 가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와 유사한 문화재로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민속자료 : 우리 민족의 기본적 생활 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중 전형적인 것을 지정한다. 민속자료 중 무형적인 것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분야에 지정된 자료는 모두 유형적인 것만을 다룬다. 의식주에 관한 것, 생산·생업에 관한 것,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등이다.

▷사적 : 기념물 가운데 선사시대의 유적 및 고분, 제사와 신앙에 관한 유적, 정치 및 전쟁에 관한 유적, 산업·교통·토목 관계 유적, 교육·사회사업 관계 유적, 분묘와 비석 등의 유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한다.

▷명승 :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을 말한다.

▷천연기념물 : 기념물 가운데 동물이나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 식물(자생지)이나 광물, 그리고 동굴로서 중요한 것을 말한다.

6) 문화재청, 앞의 책, p. 17.

▷중요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중 국가에서 지정한 것을 말한다.

▷문화재자료 : 도지사가 지정하기는 하지만 건조물·사적 등의 구별이 없이 일괄적으로 지정하는데, 건조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 문화재 보호법이나 시·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라면, 비지정문화재는 이러한 법령에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일컫는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매장문화재 : 토지·해저·건조물에 포장된 문화재를 말한다. 건조물에 포장된 문화재란 탑이라든지 불상 등에 안치되어 있는 사리장치나 복장 유물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동산문화재 :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보물·중요민속자료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지정 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외에 지정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50년 이상 된 동산 문화재이다. 단, 생존자의 작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향토 유적·유물)

3) 향토 문화재의 교육적 기능

레이간(Ragan. W. B)은 “교육과정은 아동의 경험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것은 교과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수요목에 있는 것도 아니며, 교사의 의도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⁷⁾ 이 말은 곧 인간이 태어나 성인이 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생활의 장으로서 향토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향토 문화재가 갖는 교육적 기능에 대해 기다기요히로(木田清博)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⁸⁾

7) 강창렬, 앞의 논문, p. 6.

8) 강창렬, 앞의 논문, p. 6.

첫째, 아동의 흥미 유발과 학습의 실감을 갖게 하며 문제의식 제공 및 주체적 학습에 기여한다.

둘째, 직접 경험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사회과학의 지식과 법칙을 학습할 때, 또는 학습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일반성을 갖고 있는가, 정확한가를 향토 주변의 구체적인 사물과 사상에 의해 검증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

이원순은 향토 문화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⁹⁾

첫째, 향토 문화재는 향토 사회인의 문제 해결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을 걸쳐 고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써 온 조상들의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향토의 당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둘째, 향토 문화재는 공동생활의 감정을 유대로 하는 지연사회이다. 따라서, 향토에 산재해 있는 많은 역사적 유물이나 유적, 향토와 유관한 사실을 학습자의 조상들이 직·간접적으로 이룩해 놓은 산물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는 조상의 피와 땀의 결정체에 대해서 더욱 애착심을 가지고 피부로 느끼는 친밀감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향토 문화재를 학습자와 가장 가까운 신변사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향토 문화재를 통하여 향토의 역사적 과정을 학습하면서 그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향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제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향토 문화재를 활용한 학습은 역사가 학생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람들과 사건의 무미건조한 구성으로 짜여져 있다는 생각을 없애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느낌을 주는 과목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즉, 역사가가 역사를 서술하는 증거가 바로 자신의 주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며, 그런 증거들을 통해 역사에 대한 상상력을 자

9) 강창렬, 앞의 논문, p. 7.

극하여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매우 유익한 학습이 될 수 있다. 향토의 구체적이고 친근한 사실과 접촉하고 학습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험과 결과로써 얻어진 지적 이해는 향토 애호 및 문화 존중의 태도를 갖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향토 출신의 역사적 인물의 애국적 행적을 통한 향토사 및 국사의 사례지도는 애국심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향토 문화재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인식은 향토애의 전제가 될 것이다. 또, 향토의 구체적 사실과 현상에 관한 자료를 다루는 학습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사회현상을 보는 안목, 문제해결능력의 신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향토 문화재 교육의 새로운 방향 및 유의점

1) 현행 문화재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우리나라의 각종 문화재는 일본의 침략과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많이 파손되고 일실되었다. 특히 무형문화재는 거의 인멸되다시피 하던 것이 국가와 사회의 어려운 노력 끝에 그 명맥을 유지하고 원형을 복원하는 단계에 와 있다. 아울러 우리 문화재에 대한 가치가 재인식되면서, 사회 일반에서는 우리 문화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연구 성과도 양과 질 모두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동향과 함께 초등학교에서도 특히 사회과에서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탐구를 학습 과제로 부과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의 우리 문화재에 대한 학습의 내면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님이 곧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하여 초등학생들의 교수·학습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모두가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교사들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학습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몰라 학생들에게 현지에 가서 그저 답사하고 조사해 올 것을 방과 후 과제로 부과하기 일쑤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박물관이나 사적지에 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용어로 된 설명서를 베끼기 일쑤이고, 심지어는 이것이 부모의 과제로 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 결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설문 조사

에서는 가장 하기 싫은 학습활동의 하나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탐구활동을 뽑고 있다.

우리의 교육적 상황을 보면 지식 중심의 학교 교육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의 활동이 보다 중시되고, 추상화된 지식보다는 일상생활이나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며, 다른 문화 이해를 비롯한 국제이해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상황의 변화는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교수·학습의 의의를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각종 문화재를 체험 활동을 통하여 학습하는 활동을 더욱 요구받게 될 것이다.¹⁰⁾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실로 많은 것처럼 보인다. 먼저,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지도해야 할 교사들조차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의 경험을 전혀 갖기 못하였다. 또한 문화재 견학이나 조사활동 중심의 체험적 문화재 학습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거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교수·학습의 방법이 연구되어 보급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지금 교수·학습 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방적인 과제 학습으로 제시되는 문화재 학습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도는 문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을 기대할 수 있기는커녕,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문화재에 대한 흥미와 관심마저도 사라지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취지를 연구하여 현재의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강구하여야 한다. 무조건 학생들을 문화재의 현장으로 내몰아 문화재 앞에서 당황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화재가 있는 현장에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학습을 하여 의문과 조사 과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현 상태의 문화재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재에 대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본 연구는 단지 현행 초등학교 교과서와 제7차 교육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화재에

10) 문화재청, 앞의 책, pp. 71~72.

대하여 초등학교 나아가서는 중학교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각종 문화에 대하여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연구에 입각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은 책상 위에서의 연구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실천과 병행하여 행하여질 필요가 있다. 실천과 병행하여, 그러한 실천을 개선할 수 있는 이론과 자료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향토 문화재 학습지도의 유의점

우리나라 문화재 학습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도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의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재 학습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종래에 비하여 생활문화에 대한 학습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종래까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남아 있는 문화재보다는 국가 지정 유형문화재에 대한 학습을 중심으로, 또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행해져온 것이 아닌가 반성된다. 그리고 우리 문화만이 우수하다는 간헐 생각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반성점에 기초하여 이제부터 유의하였으면 하는 문화재 학습 지도의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¹⁾

첫째, 한국의 생활 문화 이해에 초점을 맞춘 문화재 학습 지도가 필요하다. 이제부터의 사회는 국제화가 더욱 진전되는 것이 예상된다. 국제화시대에는 국제적 소양과 함께 한국 사람다움을 풍길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지향해야 할 인간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문화를 비롯하여 오늘날의 생활 문화를 두루 체험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리의 생활 문화 이해를 위해서는 요즘 권장되고 있는 ‘교환학습’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교환학습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타 지역에 살면서 현지에 있는 학교에

11) 문화재청, 앞의 책, pp. 72~74.

전·입학 절차 없이 수업을 받으며 다른 지역의 생활과 자연 환경을 체험하도록 하는 학습'이다. 교환 학습은 도시 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농·어촌 지역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실시하고 있다. 이때 농·어촌의 결연 학생 집에 홈스테이하면서 농·어촌의 가정생활과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그것을 이해하고 소중히 하는 태도와 능력을 학습하게 된다. 농·어촌의 학생들도 도시의 생활문화를 체험하면서 경험의 세계를 넓히는 동시에 자신의 문화를 더 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교환학습은 학생들에게 있어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교환학습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살던 지역과는 다른 곳의 낯선 생활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 특히 도시의 학생들에게는 농·어촌 사회에 남아 있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생활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과 이해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환학습은 우리의 생활문화 이해 프로그램이며 동시에 다른 문화 이해 프로그램이 된다.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도 우리의 생활 문화에 대한 학습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민족 전래의 연중행사에 대하여 교육하고, 또 실제로 가족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연중행사에는 우리 민족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중행사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전통적인 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가족과 친족들이 많이 참가하는 행사로서 설이나 추석, 제사, 회갑연,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시골 마을의 동제나 고사 및 다른 가족의 행사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또 참가해 보는 것은 우리 민족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데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둘째, 지역 탐구 학습을 문화재 학습과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재나 생활 문화를 조사하여 파악하는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 및 인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생활공간인 친근한 공간이나 어떤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탐구 학습을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회과 학습과 문화재 이해를 위한 학습의 준비를 갖추 수 있다. 지역 탐구를 통하여 습득한 여러 가지 학습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시켜 우리나라의 각 지방은 물론 세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질적인 지역에 대한 탐구 학습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역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문화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지역 탐구 학습의 방향은 개개인의 발달을 통한 인간형성을 목적으로, 학습자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의 학습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사회인식을 형성하고, 학습자의 능동적, 창조적 참여가 가능한 개방적인 학습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탐구 학습은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각 지역이 갖는 독특한 문화 양식의 이해와 문화적 상대주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협력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셋째, 우리의 전통 예술 및 민속놀이에 대한 이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학습은 단지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민속놀이에서부터 시작하여 무형문화재 중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까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 향토 문화재 활용을 통한 현장학습

1) 현장학습의 개념

현장학습의 정의는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으나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실제의 장면에서 직접 관찰하거나 조사하면서 전개하는 학습 방법, 둘째, “학습의 장을 사회적인 사실과 현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습 방법”, 셋째, “현장학습은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총칭”이라는 넓은 의미의 정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학습의 개념을 학습하는 장소의 문제와 학습하려는 학습대상을 관련지어 좁은 의미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학습하는 장소의 문제이다. 즉, 현장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가급적 학교로부터 가까운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부터 현장까지는 모두가 도보로 이동할 수 있거나 혹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단 몇 십분 내에 도착하여 재빠르게 학습활동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학습하려는 학습대상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학습대상은 주어진 공간 안에서 학생들이 직접 발견해 내거나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유형의 학습대상물이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학습활동을 행하는 학생들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저학년, 중학년 및 고학년 중 특정 학년의 학습내용과 관련 지을 수 있다면, 매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과 같이, 좁은 의미로 한정시킨 현장학습의 개념은 학습장소와 학습대상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가까운 지역사회에 항시 존재하는 지역자원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교사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현장학습에서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현장학습의 목표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과 같이 역사 학습은 직접 경험을 위한 야외와 현장학습이 필수적인데 이것은 교실에서 배운 개념, 법칙, 사실들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조사·분석을 하고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즉, 현장학습을 통해 학생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인간 생활과 관련된 여러 현실을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 분야에서의 사적지 답사 등은 현장학습으로 형태화할 수 있는 분야로서 사회과 교육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장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생활 현장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생활 경험과 시야를 넓히고, 사회 요인간의 관계를 보다 잘 이해시킬 수 있는 효과적

인 학습 방안으로 교사의 치밀한 교육적 의도와 조치에 따라 주제 학습·조사 학습·견학 학습·토의 학습 등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로우(Laws, K)는 야외 현장학습의 목표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¹²⁾

① 태도와 심미적 목표

- 학생의 호기심을 환기한다.
- 배움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증진한다.
- 학생에게 발견에 대한 즐거움의 경험을 준다.
- 역사 학습을 즐겁게 하며 더 깊은 흥미를 준다.

② 지적 목표

- 책이나 교실에서 배운 여러 가지에 대하여 더 좋은 이해를 하게 된다.

- 학생에게 관찰과 사고의 지식 획득의 능력을 길러 준다.
- 자연 환경과 인간 활동의 관계를 보여준다.
- 사적지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깨닫게 한다.

③ 기능 목표

- 탐구적 역사 문제에 대한 이해 증진
-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
- 데이터를 모으고 기록하며 분석하는 기능의 증진

3) 현장학습의 중요성

현장학습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제 학습이나 강의식 수업과는 달리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 판이한 차이를 나타낸다. 우선 딱딱한 교과서 내용에서 자연과 사회의 물적·인적자원을 학습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흥미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장학습은 학습자의 현실 생활을 중심으로 사회와 직결시킬 수 있으므로 실

12) 이영희, “향토 사료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p. 16.

천인으로서의 사회적 인격을 양성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그 교육적 가치를 들면 다음과 같다.¹³⁾

첫째, 자연적·사회적 현상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사회인의 행동 양식을 길러 준다.

둘째, 현장학습으로는 감각적 인식이 가능하므로, 학습한 것을 실천할 계기를 제공한다.

셋째, 자기의 환경에 대한 통찰을 깊게 하고 사고력을 신장시킴과 동시에 연구심을 배양한다.

넷째, 교사와 학습자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등의 제반 활동을 하게 함으로 교육적 과정을 풍부히 하며, 지식을 심화 확대시킨다.

다섯째, 자연적인 호기심을 이용함으로써 학습 의욕을 지속시켜 준다.

이외에도 현장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근거는 제7차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격 부문에서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사회과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 현상에 관한 지식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판단 및 의사 결정력 등의 신장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수준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지향한다. 그리고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지역성과 시사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의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¹⁴⁾

이들 내용을 토대로 부연하면 가까운 지역사회를 효율적인 현장학습 장

13) 강창렬, 앞의 논문, p. 21.

14)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pp. 149~150.

소로 활용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으며 또한 학생시절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능동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¹⁵⁾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최근의 연구 성과에서도 ‘지역사회’나 ‘향토’ 또는 ‘향토자원’ 등의 개념에 기저를 두고 현장학습이나 혹은 지역학습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는 지역사회나 향토 사회를 배경으로 한 현장학습의 현 실태를 비판하고 그 중요성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된다. 그러므로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틀과 방향이 초등학교의 현장학습에 도입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현장학습의 과정

현장학습의 방법적 원리는 현장학습 성격의 핵심 요소인 연계성, 구체성, 적극적 참여라는 차원에서 구할 수 있다.¹⁶⁾

첫째, 연계성의 원리를 가장 중요한 현장학습 방법의 원칙으로서 어떠한 현장학습 유형을 선택하든지 사회과 교실에서 배운 지식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은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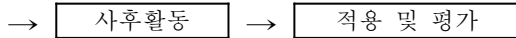
둘째, 구체성의 원리는 현장학습이 학습자가 체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학습자가 느끼기에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사회과 현장학습의 교수-학습 방법은 적극적 참여의 원리 하에만 들어져야 한다. 학습 준비와 실행, 결과의 산출에 이르기까지 학습자는 주도적인 위치에서 참여해야 한다.



15) 제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사회과교육 연구》, 2003, p. 13.

16) 강창렬, 앞의 논문, p. 21.



현장학습 모형에서 중심 활동은 사전활동, 현장 활동, 사후활동 등이다. 이러한 현장학습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도입 : 아동들의 현장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관련된 주제에 대한 VTR 시청과 과제학습 등을 통하여 학습 문제를 제기한다.

② 사전활동 : 준비 프로그램 만들기, 문제의 제기, 실행계획 단계와 사전지도 단계가 여기에 포함된다. 사전활동에서는 현장학습의 구체적인 계획이 교사와 학습자의 공동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사전활동에서는 현장학습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즉, 주제선정, 시간계획, 사전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전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아동들의 시선을 현장으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③ 현장 활동 : 현장학습 지도, 문제 발견, 현장 활동 단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은 현장에서 학습자들이 모두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단계이다. 현장학습은 이 단계가 핵심이 되며, 학습의 성패가 좌우되므로 작업·실연·관찰·조사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즉, 개별 현장 활동,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활동, 자원 인사의 방문지도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④ 사후활동 : 예상의 검증과 적용 및 발달 단계가 이에 해당된다. 현장 활동이 완료된 후 교실에 돌아와 조사된 내용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단계이다. 현장학습에서의 조사 결과에 대한 미비점을 보충하고 학습 과정을 반성함으로써 학습의 성과를 높이고 동시에 그 결과를 발표·협의·제작·전시 등의 방법으로 연결지어 효과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⑤ 적용 및 평가 : 현장학습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교실 지식을 아동들의 기록물과 대화 과정에서 발견·정리하여 다음 현장학습 활동의 자료로 사용한다.

5) 현장학습의 문제점과 해결책

현장학습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동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수업을 실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¹⁷⁾

<교사입장>

첫째, 수업 시간의 획일적 운영으로 교실을 떠나 실제 현장에서 활동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교장의 배려와 동료 교사의 협조가 있어야 하겠고, 담임교사가 방과 후 시간도 학생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둘째, 현장학습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현장학습의 필요성을 학부모에게 이해시켜 자기가 쓰는 경비를 해결하도록 하고 아울러 학교측의 협조도 필요하다.

셋째, 현장에서의 위험 부담, 사고 발생의 소지에 대한 염려가 교사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는 현장학습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같다는 학교 관리자의 인식과 배려가 필요하다.

넷째, 소수 학생들의 산만한 행동이나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하거나 질서 유지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생들의 발견적 탐구 태도를 저해하거나 즉흥적인 현장 학습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는 각종 연수시 교사에게 현장학습 방법을 체계적으로 재교육하여 교사의 현장학습 지도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학생입장>

첫째, 현장학습은 단순한 구경이나 소풍 정도로 생각하여 현장학습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사가 현장학습 장소에 대한 사전 연구 과제를 중단거나 치밀한 준비를 유도함으로써 불식될 수 있다.

둘째, 현장 활동 중 유물이나 유적지를 답사할 경우 그 곳에 있는 안내

17) 이영희, 앞의 논문, pp. 17~18.

판의 잡다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시간의 낭비와 더불어 현장학습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흔히 하는 수업이 아니라 일년에 겨우 몇몇의 교사에게서 몇 차례 하는 수업이기에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많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학교 관리자나 교사의 무사안일한 사고방식 및 교수 행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현장학습이 교육적 효과를 높이려면 학교측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 사회의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장학습에서는 지역 사회, 학교, 학생 모두에게 많은 부담과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과 같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 현장학습이 활성화될 때 흥미 있고 생동감 있는 향토학습이 전개될 것이다.

6) 현장학습시 유의할 점

현장학습은 학생들의 시야와 생활 경험을 넓히며 여러 사상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지역 사회의 특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는 데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고 학습 의욕을 배가하는 기회가 되나, 활동 장소가 열려 있는 야외 또는 사회생활의 현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산만해지고 자유분방해지기 쉬우며 이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현장학습에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¹⁸⁾

① 주제에 따라 학생들에게 관찰 목적을 확실하게 주지시킨다. 즉, 무엇을 관찰·조사하며 탐색하여야 할 것인가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② 학생들에게 확실한 문제의식을 주어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 보도록 한다.

③ 교사가 사전에 여러 자료 또는 설명을 통해 학생들이 관찰할 항목을 바르게 이해하며 이에 따른 사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④ 학생들에게 문제를 미리 주고 문제 해결의 대체적인 방법을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연구하도록 유도한다.

18) 이영희, 앞의 논문, pp. 18~19.

⑤ 학생들의 관찰력을 직접 관찰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비교 관찰이나 상관적 관찰까지로도 발전시켜 보도록 노력한다.

⑥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루트 맵(route map), 관찰 지점, 관찰 내용을 미리 선정하고 작성한다.

⑦ 철저한 책임 부서를 정하고 교통 및 그 밖의 안전에 세심한 배려를 한다.

⑧ 견학 면접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내용, 질문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설명할 분에게 학생들의 수준, 알고 싶어 하는 것 등에 대하여 미리 알려 준다.

⑨ 질문의 요령, 견학시의 예절, 교통안전 수칙, 관찰 지역에서의 협조 편지, 관찰·조사후의 감사장 발부 등을 지도하여 사회생활의 좋은 기회로 삼는다.

⑩ 관찰·조사한 내용을 목표에 맞게 분류하여 그 원인을 생각해 보는 탐구적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⑪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하여 자연과 시설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주의를 깨끗이 청소하여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행동한다.

Ⅲ. 한국과 제주 성곽의 비교

1. 한국 성곽의 기원과 종류

가. 성곽의 기원

성곽이란 보통 성벽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넓다. 성곽이란 인간이 집단을 형성하면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자기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이나, 일정한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축조된 구조물로 전형적인 성곽은 네모꼴로 쌓은 城과 다시 그 밖으로 네모꼴로 쌓은 廓으로 구성된다. 안쪽의 것을 성, 혹은 내성이라 하고 바깥쪽의 것을 곽 혹은 외성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성곽의 나라’라고 할 만큼 많은 성곽이 곳곳에 남아 있다. 유사 이래 930여 회에 이르는 외침을 당하면서도 이를 쫓듯이 이 땅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상들이 호국의 한 방편으로 곳곳에 크고 작은 성곽을 축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¹⁹⁾

조선초 유성룡은 胡人·倭人·朝鮮의 군사적 전술상 특징을 비교하면서 “호인은 말을 잘 타고, 왜인은 짧은 무기(칼)를 잘 쓰고, 우리나라는 성 위에서 활을 잘 쏜다”고 하면서 전술상 성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유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많은 성곽 시설을 축조하였다. 지금도 한반도 남쪽에만도 1,300여 개소의 성곽의 흔적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성곽이 나타났는지는 분명히 밝힐 수는 없다. 문헌상에 나타난 것으로는 「사기(史記)」朝鮮傳에 평양성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처음인데 이는 대체로 기원전 2세기에 해당된다.

“漢이 衛滿을 침공했을 때 王儉에 이르니 우거(右渠)가 성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것으로 보아 고조선의 말기에는 성곽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여러 달이 지나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할 정도로 본격적인 성곽전

19) 김명철, 《The Magazine of Culture & Art Foundation》, 2002, p. 47.

(城郭戰)이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남한에서는 이보다 훨씬 늦은 삼한시대에 성곽에 관한 문헌 기록이 보인다.

고고학적인 성과로는 대체로 서기 2세기 이후에 남한 지역에서 처음으로 성곽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초기 철기시대에 해당되는 김해 회현리 패총에서 城柵을 설치하였던 흔적이 발견된 예가 있다. 그러나 철기 문화를 누리고 삼국의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한 서기 1세기 무렵에는 적어도 삼한이나 삼국에 성곽과 비슷한 방어 시설이 생겨났다고 보이며 백제나 신라는 그 영역의 확장에 따라 성이나 책을 신축하였으며 삼한의 여러 세력들도 취락 주변에 성을 가지고 있어 성을 기초 단위로 한 성읍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성곽의 발달

삼국의 성곽 시설로는 대부분 간단한 목책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본격적인 석축에 의한 성곽은 삼국이 고대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한 3세기 이후에 가능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목책의 시설물로부터 시작하여 차츰 토성으로 발전해 갔으며 그 다음 단계에는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용되는 석성을 쌓았다.

목책은 나무 기둥을 엮어 세워 적이 넘어오지 못하게 만든 원시적인 울타리 성이었지만 삼국시대에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에서도 목책성이 주요 방어 시설로 활용되었다.

토성은 흙을 다져 넣어가며 쌓는 판축법(板築法)과 토성이 축조될 곳의 좌우 흙을 파내 둔덕을 쌓아올리는 삭토법(削土法)이 있는데 판축식은 주로 평야에서, 삭토식은 산등성이에서 사용되었다.

목책성이나 토성, 석성 등은 그 출현 시기가 각기 다르지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기능에 따라 혼재해 왔으며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의해 벽돌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정조 때 수원성 축성에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을 뿐 우리나라의 성곽은 석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삼국시대의 성곽은 산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 발생 과정도 산성이 다른

형식의 성곽보다 먼저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세가 산악으로 중첩되어 있어 자연 지세의 험고(險固)를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주로 낮은 구릉을 이용하여 토축 또는 石心 토축의 토성을 쌓다가 후기로 갈수록 성곽의 규모도 커지고 재료도 대개 석축으로 바뀌게 된다. 또 처음에는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정상부근에 테를 두른 듯한 테피형이 많으나 후기에 오면 골짜기를 둘러싸는 포곡형(包谷形)이 주류를 이룬다.

테피형은 대체로 규모가 작은 산성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높은 산봉우리에 쌓은 경우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평야에 가까운 구릉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도 있다. 산성의 둘레는 4백 내지 6백 미터 가량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8백 미터가 넘는 큰 것도 있다. 성벽을 토축으로 한 것이 많으며 또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둘러쌓은 것을 볼 수 있다.

포곡형은 내부에 넓은 계곡을 포용한 산성을 말하는데, 계곡을 둘러싼 주위의 산 능선을 따라 성벽을 축조하였다.

성내의 계류는 평지에 가까운 곳에 마련된 水口를 통해 밖으로 흘러 보내는데 성문도 이러한 수구 부근에 설치되는 수가 많다.

성안의 가장 높은 곳에는 將臺를 만들어 사방을 내려다 볼 수 있게 하고 평탄한 지형을 골라 군창 등의 건물을 세웠다. 성벽은 대개가 견고한 석축으로 쌓았으며, 자연석 또는 다듬은 돌을 사용하고 있다.

석축의 구조적인 공법으로는 夾築과 內托의 두 가지 축성법이 있는데, 전자는 성벽의 안팎을 모두 수직에 가까운 석벽으로 쌓은 것을 말하며, 후자는 바깥쪽만 석축을 이루고 안쪽은 흙과 잡석으로 다져서 밋밋하게 쌓아올린 것을 말한다. 그런데 삼국시대의 산성은 대개 내탁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조선시대의 산성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내탁법의 산성에서 성안 사람들이 성곽을 방어하기에 더 편리했기 때문이다.

석축 방식은 이른바 ‘물림쌓기’란 공법으로 아랫돌에 비해 윗돌을 1치 3푼 씩 뒤로 물려 쌓아 전체적으로 성벽이 15°가량의 경사를 유지하게 하였다. 따라서 성벽의 단면은 사다리꼴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오래 견고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한 공법상의 배려이다.

삼국시대의 축성술은 백제를 통해 일본에 전해져 규슈지방과 대마도에는 ‘조선식 산성’이란 이름으로 많이 남아 있다. 일본에 건너간 백제인 기술자들은 7세기 전반부터 후반에 걸쳐 대규모의 ‘조선식 산성’을 쌓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북규슈의 太宰府 방위를 위해 축조한 大野城과 대마도의 金田城을 들 수 있다.

다. 성곽의 종류

현재 남한 각지에 분포된 城址의 수는 1천 2백 26곳에 이르고 있다.²⁰⁾ 그러나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²¹⁾ 우리나라의 성곽은 그 위치나 형태·재료·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그 명칭도 다양하다.

한편, 조선 초기의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성의 명칭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京城 2개소
- ② 王城 2개소
- ③ 邑城 171개소
- ④ 고적성(古跡城 ; 과거에 있었던 성곽) 182개소
- ⑤ 山城 182개소
- ⑥ 長城 5개소
- ⑦ 行城 17개소
- ⑧ 營城 29개소
- ⑨ 鎭城 27개소
- ⑩ 堡城 92개소
- ⑪ 소(所)·수(戍) 7개소
- ⑫ 철옹성 2개소
- ⑬ 倉城 1개소

20) 1978년 문화재 관리국 조사.

21) 반영환, 《한국의 성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p. 197.

⑭ 기타 13개소

합계 759개소

위와 같은 분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곽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축성 재료의 의한 분류

가) 土城 : 토성은 고대 삼국 시대부터 고려 말까지 널리 유행하였으며, 조선 초 태조 때의 한양 도성도 土築으로 쌓았었다. 토성은 흙을 다져서 쌓는 판축법(版築法)과 성터의 안팎을 깎아 內隍과 外隍을 만드는 삭토법(削土法)이 있다.

판축법에 의한 토성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초기 백제 시대의 풍납리 토성과 부여의 백제 시대 부소산성, 익산의 왕궁리 토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토성은 평지에서 주로 축조되며, 산지의 경우에는 삭토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산지에서는 산 기슭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흙을 파내서 가운데를 둔덕처럼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쌓아 올렸다.

이러한 삭토법에 의한 토성은 고려의 천리장성과 삼국 시대의 축성인 서울의 아차산성이 대표적인 예이다. 토성은 석성에 비해 경비와 인력이 훨씬 덜 들기는 하지만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는 토성을 석성으로 수축하는 일이 많았다. 서울 도성이 세종 때 석축으로 개수되었고, 강화 내성이 숙종 때 석성으로 개축된 것은 그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나) 石城 : 석축으로 성벽을 만드는 방식은 우리나라 성곽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다.

석축은 돌을 조금씩 뒤로 몰려 쌓아올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안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성벽의 경사는 약 15°가량을 유지하게 된다.

석성은 처음에는 자연석이나 할석(割石)을 사용하다가 조선 숙종 때에 오면 네모 반듯하게 정방형으로 다듬어진 무사석(武砂石)을 사용하게 된다.

석성은 무거운 돌을 다루어 축성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고 적지 않은 위

힘이 따르는 공사이다. 또한 충분히 석재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선 정조 때에 수원성을 쌓으면서 석재를 얻기 위해 고심한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그래서 석성의 폐단을 들어 비경제적이며 비실용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벽돌로 성을 쌓을 것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석성이 주류를 이룬 것은 석재는 견고하고 튼튼하여 攻城具를 막는 데에는 제일이었기 때문이다.

삼국 시대의 석성으로서 부여 성흥산성과 영춘의 온달산성, 청주의 삼년산성, 익산의 미륵산성 등은 아직도 성벽이 잘 남아 있는 곳이다.

특히 삼년산성과 온달산성은 안팎을 모두 석축으로 하여 벽면이 거의 수직에 가까우며, 가장 높은 곳은 10~13m나 된다.

통일신라시대의 석성으로는 화북의 견훤산성, 월성군과 울주군의 경계에 있는 관문성 등이 있다.

고려 시대의 석성으로는 개경의 내성, 진도의 용장산성, 설악산의 권금산성 등이 있고, 천리장성이 지형에 따라 평지에서는 석축으로 되어 있다.

조선 시대의 석성으로는 서울 도성을 비롯하여 북한산성·남한산성·금정산성·해미읍성이 대표적이며, 모든 읍성이 석축으로 되어 있다.

다) 土石築城 : 흙과 돌을 함께 사용하여 성벽을 만든 것을 말한다. 석축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산성은 대부분 바깥쪽은 석축을 이루고 있으나 안쪽은 내탁(內托)이라 해서 토사와 잡석으로 다져서 비스듬히 쌓아올렸다.

토성의 경우에도 백제의 익산토성은 토석축으로 되어 있다.

라) 木柵 : 목책을 둘러 방어 시설을 한 것은 성곽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라고 믿어지는데, 고구려가 태조왕 46년(98)에 두만강 연안에 柵城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신라도 일성왕 4년(137)에 강릉 부근에 5柵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으며, 백제도 일찍부터 책성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목책은 조선시대에도 활용되었는데, 특히 권율장군이 왜적의 대병을 격파한 행주산성은 바로 이중으로 된 책성이었다.

목책은 성곽의 부수적인 시설로도 이용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진주성과 남원성에 목책이 설치된 일이 있고, 조선의 성곽을 공격하는 왜적들도 급히 목책을 만들어 공성전에 활용한 일도 있다.

마) 塼築城 : 중국에서는 이미 당나라 때 전축성이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초기에 몇 예가 나타나고 있어 이 무렵에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4군·6진을 설치하면서 茂昌·鐘城·穩城·富寧·虞芮邑城에 벽돌을 사용했음을 보여 준다.

또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8곳의 전축성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함경도와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중에 순전한 벽돌성은 6곳뿐이고, 2곳은 돌이나 흙을 함께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중국식의 전축성이 어떻게 전래된 것인지는 확실한 기록이 없으나,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들이 중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워가지고 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뒤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야 실학자들에 의해 전축성의 실리가 강조되었고, 숙종대에 강화산성을 수축하면서 女薔에 벽돌을 사용하였고, 정조대에 축성된 수원성의 일부가 벽돌로 축조되었다.

2) 구조 형태와 규모의 의한 분류

가) 長城 : 국경의 변방에 외적을 막기 위해서 축성한 것인데, 行城 또는 關城으로도 불리었다. 고구려는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요동장성을 쌓았으며, 신라는 왜구를 막기 위해 관문성을 쌓았고, 고려는 북쪽 국경지대에 국내성과 압록강의 경계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구축하였다. 덕종 2년(1033)에 쌓은 천리장성은 1천여 리의 석성이며, 높이와 두께가 각각 25척이었다.

나) 曲城 : 곡성은 성곽의 독립된 명칭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한 성곽의 일부 시설을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쓰여졌다. 「동국여지승람」에서도 조선 초기의 성곽을 기록하면서 곡성은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

만 성곽의 시설을 설명하면서 ‘곡성이 몇 개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곡성이란 성벽의 앞쪽에 별도로 뛰어나오게 만든 구조물이며, 수원성에서 곡성의 가장 발달된 형태를 볼 수 있다.

다) 甕城 : 곡성과 마찬가지로 옹성도 성곽의 시설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다.

맹산(孟山)과 영변에 철옹성이 있다는 기록이 나오지만, 특수한 형태로 분류해서 이름 붙인 것은 아닌 듯하다. 옹성은 성문 앞에 차폐물이 없을 때 성문을 가리기 위해 축조하는 시설인데, 서울 동대문의 반월형 옹성을 비롯, 수원성의 장안문, 팔달문에도 옹성이 있다.

박제가(朴齊家)는 「北學議」에서 “성문 밖에 옹성을 만들지 않고 혹 있다 하여도 옹성 위에 女牆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축성을 비판하였다.

라) 月城 : 성곽의 형태가 달 모양 같다고 해서 월성 또는 반월성이란 이름을 붙였다. 신라의 궁성은 월성이라 불리었고, 백제의 궁성인 부소산성은 반달같다 하여 반월성이라 하였다. 고려가 망한 뒤 개경에 쌓은 내성도 반월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경주에는 월성 외에도 만월성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월성 또는 반월성은 궁성인 경우에만 그 이름을 사용하였다.

3) 위치 및 지형에 의한 분류

가) 山城 :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아 일찍부터 산성이 발달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전국에 759개소의 성곽이 있었는데, 이 중에 산성이 182개소로 가장 많았다.

산성은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적의 공격을 약화시키고 항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축성되었는데, 고려 시대부터 있었던 淸野作戰은 일단 유사시에 적이 내침해 오면 민간인들은 거주지를 버리고 인근의 산성에 집결하여 적으로부터 받을 피해를 방지하도록 한 전술이다.

산성은 평야를 앞에 둔 높은 산에 자리잡은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들판을

건너오는 적을 빨리 발견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평지와는 동떨어진 깊은 산중에 산성을 쌓기도 하였다. 이 경우에는 외부와 단절된 陔天險을 이용, 지구전을 계속 하려는 의도에서이다.

칠곡의 가산산성, 문경의 조령관문, 북한산성, 창녕의 화왕산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산성은 산기슭에서부터 시작하여 능선을 따라 정상 가까이 이어지는 포곡식(包谷式) 산성과, 산봉우리의 중턱쯤에서 한바퀴 휘돌아 쌓는 테피식 산성으로 나누어진다. 포곡식 산성은 계곡을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감싸고 축성되며, 따라서 그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

북한산성이나 남한산성, 동래의 금정산성, 상주의 백화산성 등은 규모가 큰 산성들이다. 특히 금정산성은 둘레가 17,336m나 되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산성이다.

테피식 산성은 멀리서 보면 시루에 흰 번을 두른 것같이 보이므로 ‘시루성’이라고도 불리는데, 부여의 증산성과 청마산성, 한산의 건지산성, 상주의 견훤성, 창녕의 성산산성과 김해의 분산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산성의 안에는 우물과 군창을 두었으며, 골짜기에 성문을 설치하고 수문도 만들었다. 성문의 주변은 적의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에 대개 큰 돌을 사용하여 다른 곳에 비해 더 튼튼하게 쌓았다.

나) 平地城 : 산성에 대비하여 평지에 쌓는 성곽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邑城을 대부분 평지성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평지성은 군사적인 방어 목적뿐만 아니라 邑治로서의 행정 구역의 성격도 아울러 갖는다.

서울 성동구의 풍납리 토성은 대표적인 평지성이며, 해미읍성·낙안읍성·경주읍성·진도의 南桃城·언양읍성·홍주성 등은 전형적인 평지성이라 하겠다.

다) 內城·外城·中城 : 내성은 子城이라고도 부르며, 내·외성을 쌓을 때 안쪽의 작은 성곽을 말한다. 서울 도성에는 궁궐을 둘러싼 宮城이 내성이며, 都城이 外城이 된다. 평양성에도 내·외성의 구별이 있으며, 백제의 왕도인 부여에도 내성과 외성이 축조되었고, 고려의 왕도인 개경에도 둘레 2천 6백

간의 궁성이 있고, 현종 때 둘레 2만 9천 7백 보의 외성이 설치되었다.

이와 같이 도성에는 내·외성의 구별이 있었으나 일반 성곽의 경우에는 꼭 내·외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고려 시대의 강화성은 궁성과 中城에 해당되는 강화산성, 외성에 해당되는 강화성 등 내·외·중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조령 관문도 내·외·중성의 3중으로 되어 있다. 산성의 경우에는 정상에 내성을 쌓고 중턱에는 중성을 평지 가까운 곳에 외성을 쌓는 예가 있는데, 가산산성이 이 방식을 따랐다.

내·외성을 갖추고 있는 산성으로는 고려의 주산성, 진주성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다.²²⁾

4) 거주 주체에 의한 분류

가) 都城 : 왕궁이 있는 성을 도성이라고 하며, 王城 혹은 在城이라고도 불렀다. 재성이란 왕이 거처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도성의 규모를 정방형으로 잡고 그 평면의 중심 위쪽 한 구역에 왕궁을 만들었으며, 이 왕궁의 정문을 중심으로 가로 세로 아홉 줄씩의 도로를 72척 너비로 잡아 바둑판 같은 도로망을 설치하고, 이 도시의 외곽으로 각 변의 길이가 90리에 이르는 성벽을 쌓는다는 규범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성은 자연 지세에 따라 城基를 마련하기 때문에 규격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고구려의 통구 위나암성이나 평양성, 백제의 부소산성, 신라의 금성이나 반월성, 고려의 도성, 조선의 한양도성 등이 한결같이 지세에 따라 굽이쳐 돌아가는 성벽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도성의 외성은 羅城이라고도 한다.

나) 行在城 : 행재성은 국왕이 임시로 가서 머무는 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離宮이 있는 곳이다. 수원의 華城은 바로 이 행재성에 속한다.

다) 邑城 : 읍성은 지방 행정부가 있는 고을에 축성되며, 성안에 관아와 민가를 함께 수용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읍성이 179개소가 나타나는데, 당시 府·牧·都護府·郡·縣의 행정구역이 330개소인 것으로 미루어

22) 반영환, 앞의 책, p. 208.

반수가 넘게 읍성을 쌓았음을 알 수 있다.

읍성의 형태는 不整形의 타원 또는 원형을 이루며 돌이나 흙으로 쌓았다. 평상시에는 읍성이 행정 단위가 되지만 유사시에는 방어 기능의 성곽이 되어 성문을 굳게 닫고 군, 관, 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성을 지킨다. 이러한 읍성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존재로서 고려 말에 처음 등장하여 조선 초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읍성은 남해, 서해안 지방과 북쪽의 변방에 주로 축조되었는데, 고을의 크기나 중요성에 따라 그 규모는 크게도, 작게도 축조되었다. 경상, 전라 충청 지방의 해안에 읍성이 많이 설치된 것은 고려말 이후 잦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고, 함경, 평안도에 읍성이 많은 것은 거란, 여진족들의 침략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읍성은 평지에만 쌓는 일은 드물고 대개 배후에 산등성이를 포용하여 평지와 산기슭을 함께 감싸면서 돌아가도록 축조되었다. 이런 형식은 산성과 평지성의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平山城이라고도 부른다.

읍성 가운데에서 평산성이 아니고 순수하게 평지에 축조된 형식은 조선 초기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고려 말에 축조된 읍성은 대부분 토성이었으나 조선 초기에 석성으로 바뀌고 그 규모도 확장되었으며 특히, 세종 이후로 읍성이 없었던 곳에 새로 성을 쌓는 등 읍성 축조가 활발해 졌다.

5) 기능에 의한 분류

이상의 분류 외에도 성곽의 기능에 따라 倉城·鎭城·堡·營城·戍城 등의 구별이 있으나, 다른 성곽과 구조나 시설이 특별히 구별될 수 있을 만큼 각기의 특성을 가진 것은 아닌 듯하다.²³⁾

창성은 창고의 기능을 하는 성곽이었으며, 진성·보·수성 등은 주로 국경지대나 해안 또는 내륙의 요새에 설치된 성곽을 일컬었으며, 영성도 이와 비슷한 성격으로 여겨진다.

23) 반영환, 앞의 책, p. 211.

2. 제주지역 성곽의 기원과 특징

제주지역의 성은 크게 읍성, 진성, 장성 등으로 구분된다. 제주도의 역사에서 조선시대의 석성을 제외하고 특별한 방어체제를 발견할 수 없다. 흙으로 쌓은 향파두리성과 삼별초 군대가 애월에 세운 성은 목책성이 전부였다. 몽고의 침입과 삼별초의 입도(入島)에 맞추어 조성된 해안선을 따라 두른 환해장성이 있었지만, 그렇게 대단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때까지는 제주도의 각 마을에 성곽을 구축하여 그 곳만 지켜내는 좁은 의미의 방어체제만 성립되었을 뿐이었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야 제주도 전체를 방어해내는 전방위적 방어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그 핵심에 성곽과 봉수, 연대가 있다.

지정학적으로 제주도는 한반도와 서쪽으로 중국, 동·남쪽으로 일본과 유구열도로 둘러싸인 동중국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외침을 받았다. 특히 고려 시대 원의 일본정벌을 위한 전초기지가 된다든지, 고려말부터는 왜선과 중국상선의 왕래가 빈번한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각되었다.

『고려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주는 해외의 巨鎮이며 송나라 상인들과 왜인들이 일정한 때가 없이 왕래하는 곳이니 특별히 방호별감을 파견하여 비상사태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왜선과 중국 상선이 빈번하게 제주 근해를 왕래했다는 단적인 예이다. 이에 따라 고려 조정에서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원종 원년(1260) 9월에 제주부사로 하여금 방호사를 겸하게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이나 왜인들이 제주에 표류했을 경우, 제주인들의 박해도 받았지만, 해적이 되어 살인·방화·약탈을 자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고려말부터 조선초기까지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고, 우왕 때는 1·2차에 걸쳐 대규모 선단을 구성하여 제주도 전역을 포위했다가 격퇴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의든 타의든 자연스럽게 성곽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에 남아 있는 성곽 중 고려시

대에 축조한 향파두리토성, 환해장성 등 삼별초와 관련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왜구의 침입을 대비하여 조선시대에 축조한 것이다.

조선시대 제주도에 축조된 성곽은 3개의 邑城과 9개의 鎭城이 있다. 3읍성은 제주읍성·정의읍성·대정읍성이고, 9진성은 화북·조천·별방·애월·명월·수산·서귀·모슬·차귀진성이다.

가. 성곽의 축조 시기

읍성은 거주 주체가 왕이 아니고 군현의 주민으로, 이들을 통치하는 행정적인 기능과 군사적인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축조한 것이다. 도성과 읍성에 대한 구분은 “종묘와 사직이 있는 곳을 都라고 하고 없으면 邑이라 하며 읍에 축조한 성곽을 읍성이라”고 하였다. 제주도에 읍성은 태종 16(1416) 정의현·대정현이 신설되면서 축조한 정의읍성·대정읍성과 이미 축조된 제주읍성이 있다.

<표3> 제주지역 성곽의 축조시기²⁴⁾

구분	성곽명	초축		개축	
		시기	축조자	시기	축조자
3읍성	제주읍성	태종 8년(1408) 이전에 축조됨	?	중종 25년(1530)	
	정의읍성	세종 5년(1423)	관관 최치렴		
	대정읍성	태종 17년(1417)	현감 유 신		
9진성	화북진성	숙종 4년(1678)	목사 최 관		
	조천진성	고려시대~조선초기	?	선조 23년(1590)	목사 최 관
	별방진성	중종 5년~중종 25년(1530)	목사 장 립		
	애월진성	고려시대	삼별초	선조 14년(1581)	목사 김태정
	명월진성	중종 5년~중종 25년(1530)	목사 장 립	선조 24년(1591)	목사 이경록
	수산진성	세종 21년~세종 25년(1443)	?	선조 32년(1599)	목사 성윤문
	서귀진성	중종 5년~중종 25년(1530)	?	선조 23년(1590)	목사 이 옥
	모슬진성	숙종 2년(1676)	목사 윤창형		
	차귀진성	세종 21년~세종 25년(1443)	?	효종 3년(1652)	목사 이원진

24) 김명철, 앞의 책, pp. 47~52.

鎭은 삼국시대 말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설치되어 군인이 주둔하던 무장성곽 도시 또는 군사적 지방행정 구역이다. 시기별로 진의 설치 목적이 다소 다르지만, 조선시대에는 왜구의 침입을 방어할 목적으로 남방 연변에 많은 진을 설치하였다. 이 진을 빙 둘러 축성한 것이 진성이다.

제주에도 왜구의 침입을 방어할 목적으로 진이 설치되었고, 세종 21년(1439) 제주도안무사 한승순의 건의로 진성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에 수산·차귀 방호소에 진성이 축조되었다. 중종 5년(1510) 장림 목사는 성곽이 없던 진에 성곽을 축조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일부의 진성이 축조되었고, 삼포왜란·을묘왜변·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해안의 방어가 강화됨에 따라 진성은 계속 축조·정비되었다.

제주도의 성곽 중 읍성은 15세기 초 삼읍으로 분리되면서 축조·개축되었다. 그리고 진성 중 차귀·수산진성은 15세기에 축조되었고, 모슬진성과 화북진성을 제외한 6개 진성은 16세기에 만들어졌다. 17세기에는 동해진성이 모슬진성으로 移築됨과 더불어 화북진성의 축조로 읍성과 진성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었다.

나. 제주성곽의 특징

1) 성곽의 입지 여건

성곽을 축조할 곳을 선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선적으로 성곽은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였다. 즉 읍성은 행정적인 면과 군사적인 면을 고려하여 성곽을 축성할 곳을 선정하였고, 진성은 군사적인 기능을 위주로 하여 축성할 곳을 선정하고 있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제주에 부임하는 수령마다 읍성과 진성의 입지 여건이 좋지 못하여 이설에 대하여 자주 논의될 만큼 성곽을 축조할 장소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읍성의 입지 조건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水源의 확보이다. 성내에 물이 없기에 이설의 필요성이 자주 거론되었다. 그리고 정의현은 너무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행정적 폐단과 왜구의 잦은 침입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음에 따라 정의현을 고성리(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에서 진사리(남제

주군 표선면 성읍리)로 이설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읍성은 행정적인 기능인 주민의 편의와 군사적인 기능인 외침의 방어를 고려하여 축성할 곳을 선택하였다.

진성은 要害地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축성되었다. 예를 들면, 왜선이 자주 정박하는 우도와 차귀도를 방어하기 쉬운 곳에 진성이 축조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는 4면이 바다인 제주도는 해안을 통해서만 외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안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진성은 해안 쪽으로 이설하자는 논의가 자주 거론되었던 일례를 찾아볼 수 있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 외로 진성 안은 광활하고, 수원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보관할 창고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진성과 연계된 포구를 이용함에도 불편이 있어서 안되었다. 따라서 진성은 군사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외침을 방어하기 쉬운 곳에 축성하였다.

2) 성곽의 축성 재료

제주도의 성곽은 고려시대 축성된 향파두리 토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석성이다. 즉 성곽의 축조 재료는 모두 석재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애월진성은 고려시대 삼별초가 목적으로 축성하였다가 선조 14년(1581) 김태정 목사가 석성으로 개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조 25년(1592) 이경록 목사가 명월진성도 목성을 석성으로 개축하였다. 석성의 축조는 흙이나 목재로 축성하는 것보다는 많은 공력이 들지만, 자연적으로 석재 확보가 쉽고 성곽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3) 성곽의 지형과 형태

제주도의 성곽은 평지성으로 지형에 따라 세분하면 대부분은 해안에 위치한 海岸城이다.

내륙성 : 정의읍성, 대정현성, 차귀진성, 수산진성

해안성 : 제주읍성, 화북진성, 조천진성, 별바진성, 애월진성, 명월진성, 서귀진성, 모슬진성

이와 같이 海岸城이 많은 것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해안성은 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인 기능이 많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성곽의 형태는 대부분 지형조건에 적합하게 축조됨에 따라 방형과 원형이라기보다는 부정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다만 옛 지도에 보이는 성곽의 형태가 원형 또는 방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실제의 형태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성곽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다.

이형상 제주 목사의 『耽羅巡歷圖』에도 성곽의 형태가 대부분 원형과 타원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성곽의 실제 형태라기보다는 성곽에 대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제주 성곽의 형태도 세부적으로는 부정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지만, 크게 방형과 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 확인이 곤란한 제주읍성을 제외한 정의·대정읍성은 방형으로 축조되었다. 진성 중에 형태 확인이 곤란한 모슬진성과 서귀진성을 제외한 7개의 진성 중에 수산진성과 차귀진성은 방형이고, 나머지는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축조되었다.

따라서 제주도 성곽 중 조선초기에 축조된 것은 내륙성에 방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조선중기에 이르러 축조된 성곽은 해안성에 원형 혹은 타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4) 城門

성문은 성의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이다. 유사시에는 적의 공격을 막고 전쟁의 형세가 유리할 때에는 적을 역습하거나 격퇴하는 통로였다.

성문의 수는 성곽의 규모, 축성 목적, 지형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정해졌지만 기본적으로 4개의 성문을 두었다. 성문의 방향도 동서남북으로 하며, 가능하며 간격도 균등하게 하여 출입의 불편을 줄이고자 했다.

제주의 읍성 중 대정읍성의 성문은 당초 동·서·남·북쪽으로 4개소를 설

치하였으나, 18세기 이전에 북문이 폐쇄되어 동·서·남쪽의 3문만 남았다. 최근에 대정읍성의 북문지가 발견되어 정비작업이 추진중이다. 그리고 제주 읍성과 정의읍성은 축성 당시부터 동·서·남쪽의 3문만을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읍성의 성문이 기본적으로 4문을 설치한 것과 달리 풍수지리에 의해서 북측에 성문을 두지 않은 읍성의 일반적인 형태였다.

이와는 달리 제주의 진성은 1~3개의 성문을 설치하였다. 즉 1문을 설치한 진성은 조천과 모슬진성이고, 2문을 설치한 진성은 화북·애월·수산·서귀·차귀진성이다. 그리고 3문을 설치한 진성은 별방과 명월진성이다. 이처럼 2문을 설치한 진성이 많은 것은 읍성에 비하여 규모도 작지만, 지형 여건과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군사적인 면이 충분히 고려되어 시설된 것으로 보인다.

5) 女牆

성벽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적의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낮게 쌓은 담장을 여장이라고 한다. 여장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확실치 않으나, 尉那巖城, 遼東城塚에 여장의 형태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초기부터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성곽의 여장은 제주읍성 404개소, 정의읍성 180개소, 대정읍성 155~240개소, 별방진성 139개소, 명월진성 123개소, 모슬진성 22개소, 차귀진성 73개소가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머지 성곽은 여장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耽羅巡歷圖』를 참조하면, 모든 성곽에는 여장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기록에 누락된 것 같다.

현재 수산진성에 일부가 남아 있을 뿐 대부분의 여장 시설은 훼손되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6) 甕城과 雉城

성문과 성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는 웅성과 치성이 대표적인 시설이다. 웅성은 성문을 밖으로부터 부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설치한 이중의 성벽으로

모양은 반으로 쪼갠 독과 같은 모습으로 축조한 것이다. 치성은 성벽에서 적의 접근을 빨리 관측하고 전투시 성벽에 접근한 적을 정면 또는 측면에서 격퇴시킬 수 있도록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켜 장방형으로 내쌓은 구조물이다.

제주의 성곽에는 각 문에 옹성이 시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헌에는 정의읍성·대정읍성·별방진성·명월진성에서만 옹성이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성곽에는 옹성의 시설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지만 『耽羅巡歷圖』를 보면 대부분의 성문에는 옹성이 묘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헌에 보면 치성은 제주읍성 27개소, 정의읍성 9개소, 대정읍성 6개소, 별방진성 7개소, 명월진성 7개소, 수산진성 3개소가 시설되었다. 나머지 성곽에는 설치 여부가 불분명하다.

현재 남아 있는 치성과 치성의 간격 중 가장 짧은 것은 42m, 가장 긴 것을 180m로 일정하지 않지만, 대부분은 80m~120m의 간격으로 설치되었다. 이는 바로 세종 15년(1433) 150자마다 치성을 설치토록 한 규정보다는 30m이상 넓게 설치되었다.

그리고 치성의 설치에 성곽을 축조한 후에 성벽에 덧대어 축조되었다. 이는 세종 22년(1440) 최윤덕의 상언에 따라 우선적으로 성곽만 축조되었던 사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즉 치성의 설치에 성곽을 축조한 후 17~18세기에 이르러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7) 해자

해자는 성벽 주위에 인공적으로 땅을 파서 도랑을 내거나 자연 하천 등의 장애물을 이용하여 성곽의 방어력을 증진시키는 성곽 보호시설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해자는 삼국시대부터 궁성과 도성 등에서 자연 해자를 위주로 널리 이용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해자의 설치가 규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성곽 중 제주읍성과 대정읍성에는 해자(해자와 유사한 시설)가 설치되었다. 제주읍성은 동쪽의 산지천과 서쪽의 병문천을 자연해자(혹은 유사시설)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제주읍성에 부분적으로 자연 해자를 설치하여 성문 통행은 물론 성곽의 보호시설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정읍성은 소규모로 인공해자(혹은 이와 유사한 시설)를 축조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문헌기록에는 소규모(현재 길이로 환산하며 너비 210.4cm, 깊이 147.28cm)의 인공 해자를 설치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8) 축조공법

제주의 성곽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없다. 따라서 성곽의 축조공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렵다. 다만, 성곽의 내·외벽에 대한 축조기법만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주의 성곽은 제주도 현무암을 治石한 후 허튼층 쌓기로 축조하였고, 축조는 대부분 협축 공법을 사용하였다.

성곽 외벽의 기울기에 따라 성벽의 안정성과 방어력이 크게 달라진다. 즉, 경사비율이 적으면 성벽이 완만하여 안정성이 있으나 방어력이 감소되고, 경사율이 크면 급경사가 되어 방어력은 있으나 안정성이 부족하여 붕괴의 우려가 커진다.

제주의 성곽은 성벽의 외벽 기울기가 대부분 직선형이고, 단경사를 이루고 있다. 즉, 제주 성곽의 성벽은 일정한 경사비율에 따라 성벽 하단부터 상단까지 쌓아 올렸다. 따라서 제주의 성곽은 안정성보다는 방어능력에 중점을 두어 축조했음을 알 수 있다.

(1) 3 邑城

가. 제주읍성(濟州邑城)

소재지 : 제주시 이도1동 1437-6번지 외 3필지

시대 : 조선시대

지정사항 : 제주도 기념물 제3호

현재 지방기념물 3호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읍성은 제주시 이도1동 오현단 남쪽에 그 일부가 복원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성은 탐라국 때부터 이미 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 연대는 기록상으로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바다 가운데 고립되어 중앙정부의 구원이 미치지 못하는 반면 왜구와 해적의 침입이 빈번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일찍부터 기초적인 방어수단으로 축성의 방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411년(태종 11) 제주읍성을 보수하였을 때에 그 둘레가 4천 7백척, 높이가 11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초기에는 이미 성의 규모가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성의 둘레가 4천 3백 94척, 높이 11척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 규모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1512년(중종 7)의 증축으로 그 둘레가 5천 4백 89척, 높이 11척이 되었다는데, 이후 제주읍성의 개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성안에 물이 없어 백성들의 고통이 많았고, 또 가락천(嘉樂泉)과 산저천(山底川)의 범람 때문이었다. 명종 10년(1555) 6월에 왜선 40여 척이 침입하여 제주성 동쪽 높은 능선에 결집하여 제주성을 공격하니, 이를 방어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당시 김수문 목사는 비장한 각오로 70명의 결사대를 조직하여 적진으로 돌격시켜 적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었다. 이를 乙卯倭變이라 한다. 1565년(명종 20)에 광흥 목사가 성안에 우물이 없어 백성들이 겪는 식수난과 변란 때의 물난리에 대비하여 동쪽 성을 산지내 밖으로 물려 쌓고 동서에 각 1문, 남쪽에는 2문을 내었는데, 이 때의 성의 둘레는 7천 3백 40척으로 기록되고 있다. 당초에는 가락천과 산저천, 고릉(高陵)이 모두 성 밖에 있었다. 그리고 1599년(선조 32)에 성윤문 목사가 성급을 5자 더 늘려 쌓고 남문을 하나 없애는 동시에 문 마다 초루를 만들고 남북의 두 수구(水口)에는 무지개 모양으로 남수각과 북수각을 설치하였다. 또 성 남쪽에는 제이각을 세웠는데, 이들 공사가 겨울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역사로 인하여 죽은 자가 열 중에 두세 사람이나 되어 원축성(怨築城)이라 일컬었다고도 한다. 그리고 성 위에는 격대와 포루 등이 21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1652년(효종 3) 8월에 대풍우로 남북의 수구가 무너지자 이원진 목사가 그

해 겨울에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봄에 완성하고 북수구 위에는 정자를 세워 공진루라 하였는데, 이는 두보의 시귀 중 “높은 다락에서 북극성을 바라본다 (危樓望北辰)” 는 뜻을 취한 것이라 한다. 그런데 북수각은 1665년(현종 6) 홍우량 목사가 증건하였고, 남수각은 1720년(숙종 46)에 큰 비로 인하여 다시 무너져 민제장 목사가 개축하였다. 그러나 큰 비가 내릴 때에 산저천이 범람하여 인가가 표몰됨으로 1780년(정조 4)에 김영수 목사가 물난리를 피하고자 옛 성터를 따라 길이 551보, 높이 9척의 간성을 쌓아서 그 폐해를 방지하였는데, 이 간성에는 남북에 두 개의 문을 설치하여 남문은 소민(蘇民)이라 하고 북문을 수복(受福)이라 하였다.

1847년(현종 13) 봄에는 이의식 목사가 북수구의 성을 물려 쌓아서 성 위에 천일정을 세웠고, 또 간성도 더 쌓았는데 이 때에 수복문을 중인문이라 하여 현판을 바꾸었다. 1886년(고종 23) 7월에 큰 비로 평지가 내를 이루어 인가가 표몰할 때 남수구 홍예가 무너지자 이듬해에 심원택 목사가 이를 개건하였는데, 지금은 남수각도 북수각도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사진자료를 통해서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성 안에는 산저교(동문 안)와 가락교(남문 안)가 있었으며, 특히 산저교는 김정 목사가 개명하여 광제교라 하였고 다리 밑에는 지주암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조천석(朝天石)’이란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지주는 난세에 있으면서도 절조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주는 중국 황하 가운데 있는 산으로 격류 속에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따온 비유이다. 그러나 제주성은 제주항 축항공사 때(1925~1928년)에 이를 헐어서 사용하고 그 유지(遺址)에는 도로를 개설하였으므로 일부 지역에만 그 잔해가 남아 있는데 오현단 부근 격대 3개와 성벽 길이 85.1m, 높이 3.6~4.3m가 보존되고 있다.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격대 중 2개는 옛 조상들의 축성법을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현재 예상되는 성터를 더듬어 보면, 동문과출소를 기점으로 하여 기상대→산저교→해직굴→코리아극장→송신소 남쪽→북교북벽→묵은성→묵은성 네거리→서부교회 앞→舊 현대극장 앞→제주의료원 남쪽→남문로타리→오현단 남쪽→남수각→영락교회 남쪽→일도교 북쪽→신산로→동문과출소로 이어지는 선

이다.

나. 대정읍성(大靜邑城)

소재지 : 남제주군 대정읍 보성리, 인성리, 안성리.

시대 : 조선시대

지정사항 : 제주도기념물 제12호

조선 태종 16년(1416)에 대정현이 분립되어 초대 현감 유신이 태종 17년(1417)에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성하였는데, 둘레 4,890척, 높이 10척, 타첩 155개이고, 동·서·남문에 각각 문루가 있었고, 선조년간에는 웅성과 포대를 가축하였고 동서남문앞에 돌하르방 각 4기씩 설치하였다. 성 내에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을물(擧乙물)'이라 하였다. 속전(俗傳)하기를 "탐욕한 현감이 오면 물이 말라 버리고 청렴한 현감이 오면 물이 나온다."고 하였다.

성 안 건물로는 영안관, 윤경당, 청풍당, 향사당, 군관청, 인리청, 현창, 군기고, 기패청 등 현의 치정을 위한 관아가 있었고, 향교도 처음에는 성 안에 있었다가 효종 4년(1653) 단산 밑으로 옮겼다.

병력은 현감 수솔관 115명, 성장 2인, 치총 4인, 성정군 380명, 유직군 40명이고, 소관 봉수대 3개, 연대 7개에 별장 60인, 봉군 120명이었다.

대정성은 방형에 가까운 직선으로 축성되어 둘레는 약 1,260m이다. 성 안에 도로망도 읍성에 흔히 있는 T자형 주도로와 보조도로를 활 모양으로 내어 가구(街區)를 분할하였다. 성벽은 평지에 직선형으로 석축하여 외벽은 수직에 가깝다. 현재 서측을 제외하고는 보존이 잘 되었고 특히 북측 성벽은 당시의 축성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문화재이다. 지금 남아있는 성벽의 높이는 2.8m~3.7m이고 상부의 폭은 2.7m~3.1m로 현무암을 장방형 혹은 정방형으로 다듬어 혼합하면서 하부와 상부의 돌 크기가 거의 같게 쌓아 올렸다. 격대는 6개로 우선 성벽을 쌓은 연후에 덧붙여 쌓았다. 웅성은 동·서·남문 중 동문 웅성만이 하부 성석(城石)이 3~4단 남아있다

다. 정의읍성(旌義邑城)

소재지 : 남제주군 표선읍 성읍리

시대 : 조선시대

지정사항 : 비지정

본래 정의현 설치 당시 정의현성은 현 성산읍 고성리에 있었다. 그러나 이 읍성은 정의현의 동쪽에 치우쳐 있었으므로 행정의 중심 지역으로는 적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의읍성의 이설 논의는 읍성이 마련된 직후부터 비롯되기 시작하였다. 정의읍성(당시는 지금의 성산읍 고성리에 위치)의 위치가 정의현의 동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정의현에 합속된 호아현(狐兒顯)·홍로현(洪爐縣)에서는 거리가 3식(약 90리)이나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이곳 백성의 관아 왕래, 공사(公事)의 지대(支待)와 목장 고찰 등의 일에 많은 폐단이 야기되고 있었다.

정의현성을 진사리로 이설하는 것이 결정된 것은 1422년(세종 4) 12월이다. 정의현성을 이설하고 도안무사 정간은 배추에게 명하여 기(記)를 쓰도록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당시 성의 축성과 규모를 알 수 있다. 도안무사 정간은 병조의 공문에 의거하여 삼읍 백성들로 하여금 부역케 하였으며, 책임 감독관으로는 제주관관 최치렴을 임명하였다.

성의 축조는 1423년(세종 5) 1월 9일에 시작하여 1월 13일에 완성을 하여 불과 5일만에 낙성을 보았으니, 이 당시 동원된 삼읍 백성의 수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성의 규모는 주위가 2,520척이고 높이는 13척이었다. 그 후 정의읍성의 규모는 성의 주위가 2,986척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서남 3문 외에 여첩 180개가 시설되어 있었다. 또한 성의 축성지 선정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우물의 경우, 정의읍성에는 생수가 본래부터 없었다. 그래서 빗물은 담아두는 우물을 2곳에 마련하였으며, 이 우물이 마를 경우는 성의 남쪽 2리쯤에 있는 대천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의 일부와 남문·서문이 복원되어 있다.

(2) 9 鎭城

제주도에는 과거 9개의 鎭城이 있었다. 즉 화북·애월·명월·차귀·모슬·서귀·수산·별망·조천 등지의 진성이 그것이다. 이들 진성은 둘레 100여m 정도의 조천진성으로부터 十數町의 명월진성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가지각색이었다. 형태도 사변형, 타원형, 반원형 등으로 일정하지가 않다. 성벽은 모두 석축으로 黑色火山岩의 자연석을 쌓아 올렸는데, 비교적 평할한 면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서 일치시키고 있다. 또 명월진의 남문지, 별방진의 서문지에서는 웅성의 흔적도 확인된 바 있다. 이들 진성은 수산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해안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이 특색이라 하겠다. 즉, 왜구에 대비한 것이다.

그리고 방어체제로는 방호소와 수전소, 봉수와 연대가 있었는데 이러한 방어체제는 고려 말부터 정비되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 화북진성(禾北鎭城)

소재지 : 제주시 화북 1동 1770번지

시 대 : 조선시대

지정사항 : 제주도 기념물 제56호

제주시 화북 1동 1770번지에 남아 있는 방어유적으로 숙종 4년(1678) 겨울에 지방관인 최관 목사가 진영을 설치하여 둘레에 城을 쌓고 조방장을 두어 지켰던 곳이다. 축성 당시 성의 둘레는 606자, 높이 12자였고, 동쪽과 서쪽 방향으로 두 개의 성문이 있었다. 그 중 서쪽 성문은 포구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성 안에는 군기고와 객사, 북쪽 성 위에는 망양정(望洋亭)이 있었다. 그 중 객사는 환풍정(喚風亭)이라고도 하였는데, 숙종 25년(1699)에 남지훈 목사가 지었고, 현종 14년(1848)에 장인식 목사가 이를 개건하고 상량문을 지었다고 하나 남아 있지 않다. 이 화북진에는 조방장 1인, 치총 2인, 방군 92명, 사후선 1척이 있었다. 그 뒤 화북초등학교(1926~1971)로 사용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 지금은 마을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이 성의 형태를 보면, 석축으로 제주의 현무암을 거친다듬하여 쌓았고, 궁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북쪽의 외곽은 바닷물이 닿는 곳까지 성벽이 이어져 있으며, 내벽은 현재 매립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기단석은 자연석 기반 위에 놓여 그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성터의 규모는 높이 4.3m, 폭 1.5m, 길이 80m이다.

나. 애월진성(涯月鎭城)

소재지 : 애월읍 애월리 1736번지(애월초등학교)

시대 : 조선시대

지정사항 : 비지정

애월현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태종 16년(1416)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3읍으로 개편 정립되면서 신촌현, 함덕현, 김녕현, 귀일현, 고내현, 광지현, 귀덕현, 명월현과 함께 본읍에 귀속되며, 세종 19년(1437)에는 제주방어를 위한 3성 9진이 설치되었는데, 방호소를 애월포에 두고 또 연대를 두었다.

애월진성은 둘레가 549자, 높이가 8자였으며, 남쪽과 서쪽에 문이 있었다. 성 안에는 객사과 군기고 등이 있었고 문 위에는 초루가 있었다. 그런데 이 애월진성은 원래 고려 원종 때 삼별초가 들어와서 관군을 방어하기 위하여 木城으로 쌓았던 것을 선조 14년(1581) 목사 김태정이 애월 木城 안에 있던 방호소를 지금의 애월포 연안으로 이전·축조하였는데 이것이 지금의 애월성이다.

朴天衡의 書啓 내용에는 “북면이 바다에 임하였고 포구의 배를 정박하는 곳은 가장 평온하고 장애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육지에 오는 배들이 화북이나 조천을 향해 들어오다가 풍세를 잃으면 가끔 이곳에 와서 정박하므로 요해지라 할 만하다. 그러나 성 안이 낮고 좁으며 또 우물과 저장한 양식이 없어서 외적이 침입하였을 때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전선 1척을 두었고, 배에는 격군 180명, 사수 9명, 포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방호소안에는 또 무기를 넣어두고 군기고가 있어 흑각궁 14장, 향각궁 5장, 교자궁 36장, 장전 45장, 편전 87부령, 창 10간, 조총 5문 등 여러 가지 무기가 보관되어 있었다 한다.

현재 애월진성의 성곽은 대부분 없어졌지만 북측 성벽은 바다와 접하여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眉石, 銃眼, 廻廊道, 女牆 등이 남아 있어 당시 해안성의 방어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남아 있는 성곽의 길이는 80m, 높이 6m30cm 가량이다.

다. 명월진성(明月鎭城)

소재지 :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동명리

시 대 : 조선시대

지정사항 : 제주도 기념물 제29호

명월포는 고려 원종 11년(1270)에 삼별초의 별장 이문경이 관군을 진압하여 탐라를 점령할 때 상륙하였던 곳이고, 공민왕 23년(1374)에도 제주에 있는 몽고인 목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최영 장군이 이곳으로 상륙하여 난을 진압하고 돌아간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원래 성이 없었으나 조선 중종 5년(1510) 장림 목사는 비양도가 가까이 있으므로 왜구 침공이 쉬운 곳이라 하여 木城으로 축조하였는데, 그 후 선조 25년(1592) 이경록 목사가 석성으로 개축한 것이 오늘날의 성곽으로, 둘레는 3,020척, 높이가 8척으로 타첩 123, 격대 7개가 있었으며, 동·서·남문에는 1칸씩 초루가 있었다. 성안에는 수질이 좋고 수량이 풍부한 샘이 있어 사시사철 물 걱정이 없었으며 동문 밖 큰천과 합류하여 바다로 흘러 내렸다.

1764년(영조 40) 이수봉 어사가 아뢰어 조방장을 만호로 승격시키고 제주인 중에서 삼망(三望)하여 임명하도록 하였다.

朴天衡의 書啓 내용에는 “서북쪽이 바다에 임하였고 鎭 앞에는 배를 정박할 곳이 없으나 鎭의 서쪽 3리쯤에 獨浦가 있어서 어선이나 상선이 와서 정박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또 제주와 대정 사이에 위치하여 토지가 비옥하고 魚採가 풍부하여 9진 중 으뜸이다. 성지가 광활하고 백성들이 부유하며 샘물과 창고도 있어서 충분히 자급할 수 있으므로 서남쪽 巨鎭 중의 하나”라고 하여 제주의 9진 중 명월진만이 모든 구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였다.

제주목의 서쪽에 있는 큰 진이므로 진사, 객사, 사령방, 공수, 군기고, 도청, 진고, 창대청, 진술청, 창고 4동이 있었다.

병력은 만호 1인, 취총 4인, 수솔군 82명, 성정군 330명, 유직군 99명, 진사 22명, 서기 30명 외에 소관 봉수대 2개소, 연대 7개소이므로 별장 54인, 봉군 132명이 있었다. 해안에는 수전소도 있어서 판옥선과 노젓는 군사 103명이 배속되어 있었다.

지금 보존되고 있는 성벽은 동문과 남문 사이 120m의 외벽 城石이 남아 있고 그 사이 격대 3개도 윗부분은 허물어져 자취만이 있다. 옹성은 동문에 외벽만이 남아있다.

라. 차귀진성(遮歸鎭城)

소재지 : 한경면 고산리 2228번지

시대 : 조선시대

지정사항 : 비지정

차귀진성은 둘레가 1,190자, 높이가 10자였으며, 동쪽과 서쪽에 각각 문이 있었고 문 위에 망루가 있었다. 성 안에는 객사·군기고 등이 있었다.

원래 이 차귀진성은 고려 충렬왕 때에 목마장이 설치된 뒤 고려말까지 중국 원나라에서 마축을 관리하기 위해 아막(阿幕)을 설치하고 축성하였던 곳이며,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효종 3년(1652)에 이원지 목사가 조정에 아뢰어 진을 설치하고 여수(旅帥)를 두었다. 그 후 숙종 원년(1675)에는 여수를 혁

파하고 조방장을 두었으며, 숙종 32년(1706)에는 송정규 목사가 조방장을 만호로 승격시켰으나 숙종 42년(1706)에 황귀하 목사가 다시 조방장으로 환원시켰다.

그런데 朴天衡의 書啓에는, "바다 어귀와의 거리가 3, 4리쯤 되며 축성은 가장 완전하며 형 무너질 것 같지 않으나 그 鎭 터를 살펴보면 바다 어귀의 요해지가 아니다. 또 선박들이 들어와서 정박할 만한 곳이 없고 황벽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들판에 진을 설치하여 방수하는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으므로 과거에 어사가 여러 차례 혁파하기를 건의한 적이 있으나 연혁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차귀진성은 지형적 입지조건으로 볼 때 수산성과 함께 평야형의 특징을 갖춘 성으로서 해안형과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방어 유적 자료가 될 것이다.

마. 모슬진성(慕瑟鎭城)

소재지 :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시대 : 조선시대

지정사항 : 비지정

모슬진성의 위치는 모슬포 동부두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현 항구식당 부근이 아닌가 싶다. 모슬진성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모슬포 방호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성은 암석으로 된 섬 위에 있었고, 3면이 바다로 막혀 있어서 북(동)면만이 육지와 통하였다. 성안에는 물이 없고 성 밖에 신령수(神靈水), 즉 '신영물'이 있었다. 모슬진성의 위치는 대정현성에서 남쪽으로 10리 지점이며, 석성으로 높이는 12척, 둘레는 315척에서 후에 조금 증가되어 335척이다. 東 혹은 北門만 있었으며, 성안에는 객사와 군기고 등이 있었다. 이 모슬진성은 1678년(숙종 4)에 동해방호소를 이 곳으로 옮기면서 설치된 것이다.

바. 서귀진성(西歸鎭城)

소재지 : 서귀포시 서귀동 713~717번지 일대

시대 : 조선시대

지정사항 : 제주도 기념물 제55호

지난날 이 고장을 위협하였던 것은 바람과 돌이라는 자연 재해보다도 외부로부터의 침입이었다. 서귀포의 경우, 산남 그것도 정의, 대정현의 경계점에 위치해 있었기에 방어에 어려움이 따랐고 상대적으로 외침의 수난은 더 가중되었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세워진 것이 '서귀진성'이다. 서귀진의 모습은 탐라순력도의 서귀조점(西歸操點)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이 그림은 1702년(숙종 28년)에 만들어졌다. 그림을 살펴보면 서귀진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 타원형으로 축성이 되어 있고 동·서쪽에 성문이 있으며, 성내에는 병기고, 객사, 창고 등 여덟 채의 건물이 있으나, 병기고만 지붕이 기와로 덮여 있을 뿐 나머지 일곱 채는 모두 새로 덮여 있다. 성문 밖 서북쪽에는 활 쏘는 연습장인 사장이 있고, 서귀성이 당시에는 새로운 지역이었던 듯 성 북쪽 구서귀지역에는 잣성이 둘러져 있어 말들을 사육하고 있으며, 또한 서귀포에는 수전소가 자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서귀성이 언제 '홍로'에 세워졌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제주 도안 무사 한승순이 의정부에 보고한 내용(세종실록 1439년, 세종 21년)에 의하면, 『이미 서귀소(西歸所)에는 마·보병(馬·步兵) 12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성곽(城郭)은 없다』고 되어있다.

탐라지(1653년간) 정의 성곽 . 방호소편에는 『서귀성은 돌로 쌓아 있으며 주위가 825척 5촌, 높이 12척, 성장 1명 있다. 서귀방호소는 서귀포에 있으며 東城에는 객사, 별창, 군기고, 사정이 있다. 정방연의 물을 끌어다가 동성안에 작은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가두고 남는 물은 西城밖으로 흘려 보냈는데, 영차와 여사 각 1인씩 근무하였다.』

제주목사 이원조(1841~43)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에는 『서귀성은 본래

홍로천 위에 있었으나, 1590년(선조 23년) 목사 이옥에 의해 이곳으로 옮겨졌으며, 성은 정의현 서쪽 70리에 있고, 성 둘레는 825척, 높이 12척이며, 서쪽과 남쪽에 성문이 있고 성안에는 객사, 별창, 군기고, 사장이 있다. 조방장 1명, 지총 1명, 방군 70명과 사후선 1척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서귀진 아래에 있는 포구를 수전포라 부르며, 항구가 매우 넓어 절벽을 의지하면 수백 척의 선박을 감춰 둘 수가 있는 곳이다. 서귀진 주변에는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으나, 다만 어려운 몇 가구만 살고 있다. 때문에 '서귀진' 주변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鎭 아래 사용하지 않는 목장을 이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조 8섬지기 분량에 한하여서는 영구히 세금을 감면하여 떠나가는 것을 방지하였다. 성 밖에는 다분히 논이 있었다. 성의 동쪽에서부터 정방연의 상류까지 수로를 파서 물을 이끌어와 논을 만들고, 식수로 사용하다 남는 물은 성 남쪽 밭으로 보내어 모두 옥토로 바꾸었다.』고 하였다.

정의군고지(1899년 광무 3년)에는 서귀성을 서귀보(西歸堡)라하며 『석성으로서 주위가 825척, 높이 12척, 동쪽과 서쪽에 각각 성문이 있고, 성안에는 우물이 있으며』, 당시의 정의지도에는 서귀진 위쪽을 풍덕리, 서귀포를 수전포, 서귀진에는 동문과 서문이 표기되어 있다.

현재의 서귀성 위치는 '솔동산'이라 불리는 곳 동쪽 지역인 서귀동 717번지이다. 한·일합방 초기까지만 하여도 이 곳에서 주민들을 다스렸으며, 환상(환곡)을 나눠주기도 하였다. 커다란 기와집 3채가 있었으며 죄인을 가둬두는 곳도 별도 있었고, 건물 입구에는 문이 있었으며, 이 문이 있었던 곳을 '성문거리'라고 했다. 1906년(광무 10년) 서귀진이 일본에 의해 폐지가 되면서 서귀순사분과소(파출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현재 서귀성터로 추측되는 서귀동 717번지(제일교회) 일대에는 당시 성벽이나 또는 건물에 사용했음직한 돌 몇 개만이 남아 있을 뿐이지만, 서귀성터로 추정되는 717번지경내 동산에 서서 보면, 서귀포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어, 서귀성이 정의현과 대정현을 연결하는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사. 수산진성(水山鎭城)

소재지 :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579-1, 580번지

시대 : 조선시대

지정사항 : 비지정

현재 수산초등학교 율타리인 수산진성은 약 550년(1439) 전에 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수산성은 명월, 별방, 서귀, 동해, 애월 등 도내에 있는 그 밖의 방호성이 1510년에 축성되었으니 이 성이 축성된 것은 이보다 70년이나 앞선 일이며, 차귀성이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진 오늘날 현존하는 방호소성으로 가장 오래된 성이다. 현재 수산성의 유허는 수산초등학교 율타리가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소개한 어느 방호소보다 성폭이 넓고 동서문이 홍여문으로 축조되어 있었으며, 당시 축조물의 진가를 짐작하게 한다. 성의 내부에는 병사 및 객사가 여러 곳에 있었고 해방 직전까지도 민가가 있었다.

이 성의 둘레는 1164척이고 성의 높이는 16척이었다. 성의 중간 지점에 샘물이 있어서 근래에도 그 샘물을 인근 주민들이 음료수로 이용했었다.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제주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임한 장림목사의 제주방어절목 중 조천관포, 김녕포, 도근포, 애월포, 수산포, 차귀포, 동해포 등의 9개 포구 모두 적선이 기박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미 방호소가 설치되었고, 그 중에서 수산방호소와 차귀방호소는 특별히 축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수산성은 여타의 성보다 앞서 축성돼 서쪽의 차귀성과 함께 동쪽으로부터 침입해 오는 왜구를 막기 위하여 최일선 요지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다.

중종 5년(1510) 장림목사에 의해 진성으로 활용되었으나, 선조 30년(1597)에 목사 이경록에 의해 방호소가 성산으로 옮겨지면서 일시 폐성된 바 있었다. 이경록 목사가 성산은 천연의 험포라 하여 삼읍의 군기와 창고를 모두 이곳에 옮기는 한편, 수산방호소를 여기에 이전하여 진무하였다.

이 성산성은 2년도 채 못된 선조 32년에 목사 성윤문에 의해 '성산은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멀리 한 구석에 있으니 수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여 다시 수산방호소로 옮겨졌지만 후에 청음 김상헌도 '성산은 제주의 일체라 할 수 있다. 만약 본주를 버리고 와서 성산을 지켰다함은 적을 꺾어 스스로 감히 하는 터이니 계략치고는 최하가 아닐 수 없다'고 이목사의 성산성 계획의 훌륭함을 지적한 바 있다.

탐라지는 '숙종 32년(1706)에 목사 송정규가 조방장을 만호로 올렸는데 숙종 44년(1718)에는 목사 정석빈이 만호를 고쳐서 조방장을 두었다. 여기에는 조방장 1인, 치총 1인, 성정군 170인, 방군 75인, 서기 7인, 방포수 1인, 방인 3인, 시인 7인, 하후선 1척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의 수산교 정문은 학교가 설립되면서 개설된 것이다. 당시 동문이 있었던 곳은 학교 밑감원으로, 서문이 있었던 곳은 학교 관사가 있다. 성산읍 수산리 579-1과 580번지가 성지의 지번이며, 성곽은 일부 파손된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둘레는 489m, 성너비 3.3~5.3m, 성높이 3.5~5.3m이고 성곽의 형태는 거의 정방형에 가까우며 성의 서북면 모퉁이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m 가량의 격대가 남아있다. 동서문의 넓이는 약 10m 정도였으며, 동서문은 홍여문이었으며 서문에는 누각이 세워졌던 것으로 되어 있다. 성으로부터 서남쪽 방향 300m 지점에 사장 '소시'라는 곳이 있는데 군사훈련장이라고 전해진다.

아. 별방진성(別方鎭城)

소재지 :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3354번지

시대 : 조선시대

지정사항 : 제주도 기념물 제24호

별방성에 대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목(濟州牧) 완방조』에는 "별방성은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2,390자이고, 높이는 7자이다. 정덕(正德) 경오 즉 중종 5년(1510)에 장림 목사가 이 땅이 우도로 왜선이 가까

이 델 수 있는 곳이라 하여 城을 쌓고 김녕방호소를 이곳으로 옮기어 별방이라 이름하였다.”고 하였다.

석축으로 둘레 2,390척, 높이 7척이고, 타첩 139개, 격대 7개, 동·서·남 삼문이 있었는데 모두 1칸의 초루가 있었다. 성 안에는 진사, 객사, 공수, 사령방과 특별히 대변청이 있었고, 군기고, 별고가 있어서 도내 九鎮 중 巨鎮이었다.

朴天衡의 書啓 내용에는 “동쪽과 북쪽이 바다에 임하였고 성 안은 화북이나 조천에 비해 조금 넓으며 동·서·남에 세 문과 성 안에 두 우물이 있으나 포구의 공간이 몹시 좁고 뽕죽 나온 돌 모서리가 창같이 날카로워 배를 정박할 수가 없다. 햇불을 비치해 경보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성을 설치하여 방어하는 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닌 듯하다.”고 하였다.

병력은 조방장 1인, 치총 4인, 성정군 510명, 유직군 148명, 서기 15명, 소관 봉수대 2개소, 연대 3개소에 따른 별장 30인, 봉군 84명, 동후선 1척이 있었다.

현종 14년(1848)에 장인식 목사가 이를 중수하였다. 축성 때에 흉년이 심하여 부역 장정들은 굶주리면서 쌓았다는 얘기가 전해오기도 한다

성은 지형적으로 남쪽은 높고 북쪽은 낮은 둘레 950m의 타원형 성곽이다. 동문과 서문 자리에는 양쪽으로 이미 민가가 들어섰고, 남문 자리에는 웅성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다. 격대는 서문과 남문 사이에 2개, 남문과 동문 사이 1개가 남아 있고, 동문과 서문 사이 해안으로 4개가 있었으나 대부분 허물어져서 동쪽 끝 격대 1개가 남아 있다. 1996년에 남쪽 성곽 일부는 보수하였다. 그러나 도내 9鎮 중에는 비교적 성곽이 많이 남아 있어 옛 축성법과 규모를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자. 조천진성(朝天鎭城)

소재지 :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

시대 : 조선시대

지정사항 : 비지정

조천진성은 둘레가 428자, 높이가 9자였으며, 3면이 바다로 막혀서 한 곳만이 통할 수 있었다. 9개의 진성 중 가장 작은 성이었다. 성 안에는 조천관, 주방과 마굿간, 군기고 등이 있었고, 동성 위에는 연북정이 있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 연북정은 곧 객사이며, 선조 23년(1590) 이옥 목사에 의해 성이 중창되면서 쌍벽루(雙碧樓)라 편액했던 것을, 선조 32년(1599) 성윤목 목사가 다시 중수하고 연북정(戀北亭)으로 고쳐 편액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광무 4년(1900)에 제주에 온 봉세관 강봉헌에 의해 진사 10칸이 폐지되었다고도 한다.

정조 5년(1781)에 제주에 순무어사로 왔다가 돌아가 복명한 朴天衡의 書啓 내용에는, "鎭 터가 바다 속으로 쭉 들어가 있어 배가 출항하는 데에 아주 편리하다. 그러므로 진상 물종을 실은 배는 대부분 이 진에서 출항하고 육지에서 들어오는 선박도 대부분 이 곳에 도착하여 정박하므로, 섬 안의 요로가 된다. 그러나 성 안에는 우물이 없고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도 없어서 외적이 침입했을 때에 성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조천관이 언제 세워졌는지 이에 대해 상세히 전해주는 문헌기록은 없다. 구전으로는 고려 공민왕 23년(1374) 박윤청 목사 때에 조천관이 세워진 것으로 회자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사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본디 조천이란 말은 천자를 배알한다는 뜻이고 관은 객사를 뜻한다. 관리의 주재, 숙박소인 것이다 그리고 예로부터 조천관은 화북포와 함께 제주도의 관문이었다. 관문은 국경 또는 요해지에 설치되어 통행인을 감시하는 곳이다.

을묘년 이후부터는 사선이 마음대로 출입하였는데, 섬 안에서 부역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가 이따금 사선을 타고 물으로 달아나기 때문에 조천과 별도 두 포구에서만 출항을 허락하고, 출항하는 날에는 목사 휘하의 군관 1인이 장부를 가지고 대조하면 점검하는데, 이를 출선기라 하였다. 비록 사람 한 사람, 말 한 필이라 할지라도 몰래 숨어서 나갈 수가 없다. 또 성을 쌓아 방호소를 설치하였는데, 성의 둘레는 430여 자이고 높이는 10자이다. 우물은 없고 동문만이 있을 뿐인데 문 위에는 망루가 있다.

바닷물을 둘러서 호가 되게 하였으며, 방수하는 제도는 애월과 같다.

(3) 환해장성(環海長城)

소재지 : 제주도일원

시대 : 고려~조선시대

지정사항 : 제주도기념물 제49호

제주도 섬 주위에는 賊船이 접안할 수 있는 곳이 많다. 그러므로 적을 막기 위하여 해안선의 접안할 수 있는 곳을 돌아가면서 城을 쌓았으나 이를 環海長城이라 한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 원종 11년에 진도에 있는 삼별초의 퇴로를 막기 위하여 영암부사 김수와 장군 고여림을 제주로 보내어 環海로 성을 쌓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제주에 머물기는 불과 3개월이었으므로 이러한 거대한 축성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오히려 삼별초가 그 후 2년 반을 이곳에서 활동하였으므로 삼별초들이 외부로의 침공을 막기 위하여 축성했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그 후 조선조에 와서도 왜구의 침범이 빈번하였으므로 계속하여 보수, 축성하였으며 가까운 기록에는 현종 11년(1845) 6월에 영국 선박이 우도에 정박하여 섬에 작은 하얀기를 세우고 1개월 동안이나 삼읍의 연안을 측량하므로 목사 권직이 크게 놀라 馬兵과 銃手를 총동원하여 만일의 변에 대비하였고, 그 해 겨울 도민을 총동원하여 환해장성을 수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금 도내 해안가에 남아 있는 성지는 바로 이때의 자취이고 지금 비교적 원형대로 남아있는 곳은 제주시 화북동과 애월읍 고내리 서쪽 해안가 등이다.

IV. 제주지역 성곽의 지도 방안

1. 교과서 관련단원

초등학교 《사회》 4학년 1학기 지역화 교과서 「아름다운 제주도」 中 ‘1-□□ 제주도의 달라진 모습’

가. 단원의 목표

지역 교과서인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탐구 ‘아름다운 제주도’의 단원 중에서 ‘제주도의 달라진 모습’ 단원은 중앙 교과서의 4학년 내용 중 ‘우리 시·도의 달라진 모습’ 단원과 대응하는 것으로 단원 목표는 지도, 연표, 향토지, 잡지, 도표,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시·도 및 지역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시·도 지역의 공동생활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과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이 단원은 제주도가 변해온 모습을 유물과 유적, 생활도구, 교통·통신수단, 놀이와 행사 등을 통하여 학습했던 3학년에서의 학습에 바탕을 둔 것으로, 앞으로의 지역 탐구와 국사 학습의 기초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4> 단원의 목표

영역	목표	비고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에 있는 유물·유적·사적 등의 역사적 자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해한다. · 문화재의 뜻을 알고 종류별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 연표를 보고 이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안다. · 연표와 역사 지도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와 비교할 수 있다.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유적·사적·민속 전통 등을 그 특색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제주도의 내력을 알 수 있는 연표를 작성할 수 있다. · 제주도의 역사 지도를 백지도에 그릴 수 있다.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에 있는 여러 가지 유물·유적·사적·민속자료 등에 대해 애정을 갖고 이를 보호하고 전승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 조상들의 아름다운 풍속을 이어 받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갖는다. 	

나. 단원의 내용

단원의 내용을 검토하면 제주도의 역사가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아동들에게 느끼게 하고, 조상이 남긴 문화유산을 전승하며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유물과 유적, 연표, 역사지도 등의 자료를 통하여 제주도가 발전해 온 내력을 학습하고 우리나라 역사의 대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고 있다.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학습할 내용을 주제·제재 및 내용 요소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5> 향토사 관련 내용

단 원	주 제	향토사 관련		비 고
		제재	제재별 주요 내용요소	
제주도의 모습	1. 지도에 나타난 제주도의 모습	탐라순력도 편리한 지도	제주도의 옛 지도 제주도 관광지도	
	2.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생활	.	.	
	3. 제주도의 달라진 모습	달라진 제주도 연표 만들기 삼성혈에 전해오는 이야기 민속마을 문화재를 찾아서	제주도의 옛 모습 광복 이후 연표 삼성혈, 혼인지, 삼사석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 별방진, 연대, 선사유적지, 문화재 지도	

(※. 본시 적용 주제)

<표6> 향토사내용 요소의 유형별 정리²⁵⁾

항 목	유 형	향토사 내용 요소	비 고
제주의 역사	제주의 역사	삼다·삼무·삼려·삼보·삼재	
제주의 문화재	국가지정 보물	탐라순력도, 관덕정	
	국가지정 사적	삼성혈, 삼양동 선사유적, 제주목관아지, 고산리 선사유적	
	천연기념물	빌레못굴, 서귀포 패류화석, 성읍리 느티	

25) 양도필, “초등학교 제주향토사 교육에서 인터넷 활용방안”,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p. 84.

		나무 및 팽나무, 김녕굴, 제주마	
	국가지정 중요 민속자료	연자마, 성읍민속마을, 제주 향파두리 향 몽유적지	
항목	유형	향토사 내용 요소	비고
제주의 문화재	국가지정 무형 문화재	제주민요	
	도지정 유형 문화재	제주향교, 정의향교, 대정향교, 추사 처 사각, 일관헌, 연복정, 절부암	
	도지정 무형 문화재	덕수리 물미공예, 민속놀이	
	도지정 기념물	오현단, 괘지리 유적, 별방진, 명월성지, 연대(오소포 연대), 제주성지, 삼사석, 혼 인지	
	도지정 민속자료	돌하르방, 방사탑	
제주의 전설	제주의 전설·설화	탐라 개국 신화	
민속·풍물	민속·풍물	남태, 정낭, 갈옷, 화승, 키, 도롱이	
	향토음식	향토음식	
	특산물	감귤, 조랑말, 찢툰	
문화축제	문화축제행사	문화축제, 한라문화제	
민속촌·박물관	민속촌·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촌	

다. 지도의 주안점

이 주제에서는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변화를 이해하게 하며, 지역의 달라진 모습을 알아보는 활동을 통하여 관련 사진, 그림, 지도, 연표, 향토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능력 함양에 지도의 중점을 둔다. 또, 수집한 자료를 이용한 연표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게 한다. 이 밖에 지역의 달라진 모습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지역의 미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니게 한다.

라. 학습의 과정

지역 자료 조사는 광의의 향토 조사로서 사회적 실험 연구나 사회 조사와 같은 사회학적 측면에서 주로 이용되어지고 정의된다.²⁶⁾

26) 강동우, “경주지역 문화재를 중심으로한 사회과 지역화 학습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p. 67.

지역 자료 조사는 지리 학습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 자료의 조사로서 직접적·실용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사상을 발견해 내기 위한 학습 준비 내지는 학습 내용의 일부 일 수 있다.

지역 학습 운영을 위한 문화재 조사에 관한 학습의 예를 종합하여 지역 문화재 조사지도 방안을 모색한 일반적인 과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 제기

조사 활동의 첫 단계로서 교과 단원 학습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학급 안에서 제기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토론과 의사 교환 과정을 거쳐 결정하여 조사 문제의 성질을 완전히 파악한다.

동기 유발

조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동기를 강화시키는 일은 중요하다.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할 기회를 갖거나 교사의 암시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충분한 동기를 유발시킨다.

학생들의 창의성

조사 문제에 대한 검토나 의견 교환 등의 협의 과정에서 가능한 한 학생들의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교사의 의견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조사계획서 작성

조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2. 조사 영역

3. 작업 가설
4. 세부적인 조사 항목의 설정
5. 조사 대상의 선정
6. 자료 모집 방법
7. 조사의 한계 설정

현장 학습

교과 지도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현장 학습을 계획하고 이를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책가방 없는 날’ 등을 이용한 연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자원인사의 활용 및 지역 기관의 이용

지역 사회의 주민으로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를 초빙하거나 방문하여 문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조사 결과의 정리

조사 결과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그래프, 지도, 도표 등도 필요하면 작성하거나 첨부한다.

조사 결과의 발표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대상 영역별로 발표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좋다. 훌륭한 내용은 교실 뒷면이나 현관 입구 등의 벽면에 게시하는 것은 일반화를 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면서 동기 유발의 좋은 방법이다.

문제 해결에 관한 지도 조언

학급에서 토론과 교사의 암시로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을 제언하도록 한다. 이러한 제언이 곧 지역 조사의 결론으로 도출될 수 있다.

평가 및 제언

교사는 학습 활동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학습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평가이어야 한다. 평가는 교사의 평가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의 평가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단계에 의해 학생들에게 주변을 지리적·역사적으로 보는 눈과 태도 등을 기르게 된다.

2. 제주지역 성곽 지도의 실제

가. 제주지역 성곽의 현장 학습 지도 계획(예시)

<표7> 현장학습지도계획

단원	1-□□ 제주도의 달라진 모습	교과서	사회 : 40~41 아름다운 제주도 : 44~47
본시 주제	우리 지역 문화재의 특징		
학습 목표	제주 읍성을 쌓은 이유와 특징을 알고 달라진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학습 대상	제주 읍성	학습구분	현장 학습
학습 형태	개별, 소집단	학습 대상 및 인원	4학년
일 시	2004. 00. 00.	장 소	제주 읍성 터
관련교과	사회과	관련단원	1. 시·도의 모습
소요시간	4시간	교 통 편	시내버스
준 비 물	현장 학습 기록장, 필기 도구, 카메라, 스케치북, 호각, 나침반 등		
제주 읍성 터	동문과출소→기상대→산지교→해직굴→코리아극장→송신소 남쪽→북교북벽→목은성→목은성 네거리→서부교회 앞→舊 현대극장 앞→제주의료원 남쪽→남문로타리→오현단 남쪽→남수각→영락교회 남쪽→일도교 북쪽→신산로→동문과출소		

학습단계	시간	활동내용	비고
사전활동	2~3일전	단원 도입 및 계획, 학습 방법, 학습문제 파악 현장학습계획수립, 학교장 결재, 학습 안내 현장학습에 대한 기대, 사전 탐색 아동 학습 계획 및 사후 활동 계획	
현장활동	본 활동	인원 및 준비물 확인, 교통안전과 주의사항 전달 현장 학습 내용 및 방법 확인, 출발 현장 학습 장소 도착 및 활동 내용 지도 학습 계획안에 따라 관찰, 조사 기록 질문이나 사진 촬영 및 홍보물 수집 인원 점검 및 안전 지도 학교 도착	
사후활동	다음 차시	개인별, 모듈별 현장 학습 보고서 정리 다양한 활동으로 표현활동하기 보고서 발표 및 작품 소개, 전시하기 느낀 점 및 소감 발표 평가	

나. 현장 학습 계획서 작성

제주지역의 성곽 현장 학습을 위한 계획 수립 단계로 계획서 작성은 본격적인 활동은 물론 학습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단계이다. 사전 활동 단계에서는 현장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제주도 전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학습 대상들에 대한 탐구 문제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업을 전개하고, 교사가 사전에 답사하여 찍은 시청각자료 등을 통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현장 학습 계획서는 학급의 특성에 따라 학생 개인별 또는 모듈별로 작성하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전 조사 내용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이 과정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계획서의 기본 양식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조사 계획이 되도록 하고, 학습의 경로를 일정하게 연계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교사의 의견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활동계획서에는 사전에 조사할 내용, 역할 분담, 현장학습 장소에서 지킬 일 등의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현장 학습일까지 학생들은 문헌 조사,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조사, 전문가 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대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다.

처음부터 학생 스스로 계획을 잘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점을 교사가 조언하고 해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으면 교사 주도하에 일제 학습을 통해 함께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는 요령을 재차 익히는 과정이 주어져야만 사후 학습 또는 다음의 학기, 학년에서도 학습 계획의 작성이나 실제의 활동을 무난히 해낼 수 있다.

① 학습 목표 : 교사가 안내한 학습 목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학습 목적을 쓰도록 한다.

② 사전 조사 내용 : 2~3일 전에 인터넷이나 부모님 또는 자료 등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게 한다.

③ 알고 싶은 내용 : 궁금하거나 더 조사하고 싶은 내용을 자세히 쓰도록 한다.

④ 사후 활동 : 현장 학습을 마친 후 학습 내용을 심화하고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미리 선정하도록 한다.

<표8> 현장 학습 계획서 (예시)

일 시	2004년 ○월 ○일	현장 학습 장소	제주 읍성 터
이 름	○ ○ ○	학반 및 번호	○반 ○번
학습 목표	제주 읍성을 쌓은 이유와 특징을 알고 달라진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준 비 물	현장 학습 기록장, 필기도구, 카메라, 스케치북, 호각, 나침반 등		
교 통 편	시내버스		
사전 조사 내용	1. 제주시 이도1동 1437-6번지에 있는 제주 읍성은 조선시대에 축조되었으며 제주도 기념물 3호이다. 2. 읍성은 지방의 군사·행정적 요지에 만들어졌다. 3. 제주 읍성은 1900년대 초반 제주항 공사로 인해 많이 손상되었다.		
알고 싶은 내용	1. 현재 제주 읍성의 보존상태는 어떠한가? 2. 과거 읍성 안에 있던 건물과 그 위치는? 3. 제주 지역 읍성의 특징은?		

주 의 점	1. 버스 승·하차시 질서를 잘 지키고 안전사고에 주의한다. 2.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사후 활동 계획	포스터, 광고문, 팸플렛, 낱말퍼즐, 마인드맵, 미니북, 편지, 신문, 스크랩, 만화, 시, 그림, 만들기 등

<표9> 사전 활동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관련단원	1-□□ 제주도의 달라진 모습	학습형태	개별, 소집단 학습
학습목표	▷ 제주 읍성 현장 학습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준비물	VTR자료, 사진 및 문헌 자료		
주요활동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동기유발	▷ 제주도의 문화재를 소재로 빙고게임하기 ▷ 제주도의 문화재를 찾아갔던 경험 이야기하기 ▷ 공부할 문제 확인하기	7'	
학습대상 알기 개인·모듬별 현장학습 계획세우기	▷ 현장 학습 장소에 대해 알아보기 - VTR자료, 사진 및 문헌 자료 등을 통해서 학습 대상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한다. ▷ 학습 내용 및 순서 알기 ▷ 현장학습 계획 세우기 - 탐구과제, 사전에 조사할 내용, 역할분담, 현장 학습시 지켜야 할 점 등을 정한다. ▷ 현장학습 활동 요령 지도	25'	성곽관련 교육용 s/w, VTR자료, 사진 및 문헌 자료
정리	▷ 현장학습 계획서 발표 - 각 모듬별로 현장학습 계획 발표하기 - 사전 과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기	8'	

다. 현장 학습 활동

현장 학습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으로 현장 학습 교수-학습 과정안은 아래와 같다. 활동 전에 현장 학습시 지켜야 할 점을 다시 확인하고 학습 장소로 이동하며, 이동하기 전에 학부모 보조교사에게 현장 학습에 대한 안내를 하고 학생들이 이동하거나 조사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목적지에서는 문화유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인·모듬별로 조사 활동을 진

행하고 아동들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내용을 선정하여 조사하며 자료를 수집하게 한다.

<표10> 현장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관련단원	1-□□ 제주도의 달라진 모습		학습형태	소집단 협동학습
학습목표	▷ 제주 읍성의 현장 학습을 통하여 성을 쌓은 이유와 특징을 알고 달라진 모습을 찾을 수 있다. ▷ 제주 지역의 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호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준비물	교사	지도자료, 호각, 비상약품, 사진기, 캠코더, 녹음기 등		
	학생	필기도구, 스케치북, 사전학습자료, 사진기, 나침반 등		

주요활동	교수-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준비	▷ 준비물 및 인원점검하기 - 인원 확인 및 준비물 상태 점검 ▷ 현장학습안내하기 - 현장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 공부할 문제 확인하기 ▷ 주의사항 전달하기	지도자료, 호각, 비상약품, 줄자, 필기도구, 사진기, 캠코더, 녹음기, 필기도구, 스케치북, 사전학습자료, 나침반 등.
현장조사 활동	▷ 현장학습 장소로 이동하기 ▷ 현장조사활동하기 - 모듈별로 활동계획서를 확인 - 교사의 보충 설명 및 안내 - 탐구 주제에 대한 모듈별 조사활동 ▷ 귀교하기 - 인원 확인 및 주변정리	이동 과정 중에 안전사고에 주의한다. 대중교통 이용시 공중도덕을 지키도록 하고 전세버스 이용시는 이동시간을 학습과 관련지어 알차게 활용한다.
정리	▷ 마무리 활동 및 차시 안내	조사 내용에 대해 보충 조사활동을 하도록 한다.

<표11> 현장 학습 활동지 (예시)

일시		현장 학습 장소	
이름		학반 및 번호	
관련 단원			
학습 목표			
준비물			
주의점			
사전 조사 내용			
현장 학습 내용	본 것	들은 것	
사진·그림			
느낀 점			

라. 사후 활동

현장조사 활동이 끝나면 보충 조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다음날 개인별 또는 모둠별로 현장학습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그러나 발표가 현장 학습의 목표는 아니므로 부담이 없는 범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발표하도록 한다.

심화발전학습으로 유적지에 대한 안내문 쓰기, 소책자 만들기, 엽서 만들기, 스크랩북 만들기, 찰흙으로 만들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유래, 특징, 배경, 가치, 의의 등을 이해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도록 한다.

<표12> 사후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관련단원	1-□□ 제주도의 달라진 모습	학습형태	소집단 협동학습
학습목표	▷ 제주 읍성을 현장 학습했던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준비물	▷ 지도자료, 사진, 4절지, 필기도구, 싸인펜, 색연필, 가위, 풀, 찰흙, 등.		
주요활동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동기유발 공부할문제 확인	▷ 노래를 부르며 학습분위기를 조성한다. ▷ 공부할 문제 확인하기 ▷ 다양한 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 알아보기 - 그림으로 그리기, 만화로 나타내기, 신문으로 만들기, 자료 집 만들기 ▷ 활동안내 - 자료 정리하기, 보고서 만들기, 발표하기	8'	
학습활동 전개	▷ 현장학습 보고서 작성하기 - 조사 및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 - 발표자 선정 및 발표 준비하기 ▷ 선택활동하기 - 유적지에 대한 안내문 쓰기, 소책자 만들기, 엽서 만들기, 스크랩북 만들기, 찰흙으로 만들기 등. ▷ 현장학습 보고서 발표하기 - 작성된 보고서를 발표하고 학급에 게시	25'	지도자료, 사 진, 4절지, 필기도구, 싸 인펜, 색연 필, 가위, 풀 등.
정리	▷ 현장학습에 대한 평가하기 - 현장학습에 대한 자기 반성 및 평가 - 느낀점 정리	7'	자기평가지

마. 평가

현장학습 결과 아동이 최종 획득한 지식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현장학습 계획서, 활동과정, 결과물 및 발표에 의한 평가뿐만 아니라 관찰, 면접, 자기 평가지, 포트폴리오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전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

1) 관찰

현장학습이 실시되는 동안 교사는 학생들의 사고력, 기능영역, 가치·태도

영역을 관찰하고 평가한다. 즉, 아동들이 계획했던 대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태도는 어떠한지, 학습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꼼꼼히 관찰하고 평가한다.

2) 면접

여기에서는 정식 면접보다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아동들과의 대화를 통해 평가한다. 현장 활동이 끝난 후 돌아오는 차 안이나 현장에서 학습을 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다.


3) 자기평가지


아동들이 현장학습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여 학업성취 정도를 판단하여 평가해 보도록 하였다. 사후 활동의 현장학습 반성하기 단계에서 실시하고, 평가기준은 아동의 성취 정도를 ‘잘 함, 보통, 부족’의 세 수준으로 나누어 기술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학습에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표13> 자기 평가지 (예시)


자기평가지				
○○초등학교 4학년 반 번 이름				
단계	평 가 문 제	잘 함	보통	부족
출발전예	☞ 현장학습 계획서를 작성할 때 적극 참여했나요?			
	☞ 계획서 작성이 바르게 되었나요?			
	☞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 수집 및 조사를 잘 했나요?			
도착해서	☞ 현장학습에 적극 참여했나요?			
	☞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맡은 역할을 열심히 했나요?			
	☞ 공중도덕을 잘 지켰나요?			
다녀와서	☞ 보고서 작성에 열심히 참여했나요?			
	☞ 다른 사람의 보고서 발표를 잘 들었나요?			
인상깊게 본 것을 골라 그 이유를 써 봅시다.		현장학습을 다녀온 후 느낀점을 써 봅시다.		


3. 지도 자료


자료번호	제주읍성(濟州邑城)	
1		
소재지	제주시 이도1동 1437-6번지 외 3필지 (오현단 부근)	
문화재 지정 여부	제주도 기념물 제3호	
사진자료		
내용	<p>현재 지방기념물 3호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읍성은 제주시 이도1동 오현단 남쪽에 그 일부가 복원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성은 탐라국 때부터 이미 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 연대는 기록상으로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바다 가운데 고립되어 중앙정부의 구원이 미치지 못하는 반면 왜구와 해적의 침입이 빈번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일찍부터 기초적인 방어수단으로 축성의 방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1411년(태종 11) 제주읍성을 보수하였을 때에 그 둘레가 4천 7백척, 높이가 11척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미 성의 규모가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제주읍성의 개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1565년(명종 20)에 광흥 목사가 성안에 우물이 없어 백성들이 겪는 식수난과 변란 때의 물난리에 대비하여 동쪽 성을 산지 내 밖으로 물려 쌓고 동서에 각 1문, 남쪽에는 2문을 내었는데, 이 때의 성의 둘레는 7천 3백 40척으로 기록되고 있다.</p> <p>그러나 제주성은 제주항 축항공사 때(1925~1928년)에 이를 헐어서 사용하고 그 유지(遺址)에는 도로를 개설하였으므로 일부 지역에만 그 잔해가 남아 있는데 오현단 부근 격대 3개와 성벽 길이 85.1m, 높이 3.6~4.3m가 보존되고 있다.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격대 중 2개는 옛 조상들의 축성법을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p> <p>현재 예상되는 성터를 더듬어 보면, 동문과출소를 기점으로 하여 기상대→산지교→해직굴→코리아극장→송신소 남쪽→북교북벽→묵은성→묵은성 네거리→서부교회 앞→舊 현대극장 앞→제주의료원 남쪽→남문로타리→오현단 남쪽→남수각→영락교회 남쪽→일도교 북쪽→신산로→동문과출소로 이어지는 선이다.</p>	
탐구문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제주읍성의 보존 및 복원 상태는 어떠한가? 2. 제주읍성을 쌓은 이유와 기능 및 지리적인 조건은 어떠한가? 3. 제주읍성 내의 옛 기관들의 위치와 기능은 무엇인가? 4. 제주읍성의 자취를 찾아봅시다. 	
비고		


자료번호 2	대정읍성(大靜邑城)	
소재지	남제주군 대정읍 인성, 안성, 보성리 (추사적거지 부근)	
문화재 지정 여부	제주도 기념물 제12호	
사진자료		
내용	<p>조선 태종 16년(1416)에 대정현이 분립되어 초대 현감 유신이 태종 17년(1417)에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성하였는데, 둘레 4,890척, 높이 10척, 타첩 155개이고, 동·서·남문에 각각 문루가 있었고, 선조년간에는 웅성과 포대를 가축하였고 동서남문앞에 돌하르방 각 4기씩 설치하였다. 성 내에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을물(擧乙물)'이라 하였다. 속전(俗傳)하기를 "탐욕한 현감이 오면 물이 말라 버리고 청렴한 현감이 오면 물이 나온다."고 하였다.</p> <p>병력은 현감 수솔관 115명, 성장 2인, 치총 4인, 성정군 380명, 유직군 40명이었고, 소관 봉수대 3개, 연대 7개에 별장 60인, 봉군 120명이었다.</p> <p>대정성은 방형에 가까운 직선으로 축성되어 둘레는 약 1,260m이다. 성 안에도 도로망도 읍성에 흔히 있는 T자형 주도로와 보조도로를 활 모양으로 내어 가구(街區)를 분할하였다. 성벽은 평지에 직선형으로 석축하여 외벽은 수직에 가깝다. 현재 서측을 제외하고는 보존이 잘 되었고 특히 북측 성벽은 당시의 축성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문화재이다.</p> <p>지금 남아있는 성벽의 높이는 2.8m~3.7m이고 상부의 폭은 2.7m~3.1m로 현무암을 장방형 혹은 정방형으로 다듬어 혼합하면서 하부와 상부의 돌 크기가 거의 같게 쌓아 올렸다. 격대는 6개로 우선 성벽을 쌓은 연후에 덧붙여 쌓았다. 웅성은 동·서·남문 중 동문 웅성만이 하부 성석이 3~4단 남아있다</p>	
탐구문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대정읍성의 보존 및 복원 상황은 어떠한가? 2. 대정읍성을 쌓은 이유와 기능 및 지리적인 조건은 어떠한가? 3. 대정읍성 내의 옛 기관들의 위치와 기능은 무엇인가? 4. 대정읍성의 자취를 따라가 보시다. 	
비고		


자료번호	정의읍성(旌義邑城)	
3		
소재지	남제주군 표선읍 성읍리 (성읍민속마을 내에 위치)	
문화재 지정 여부	비지정	
사진자료		
내용	<p>본래 정의현 설치 당시 정의현성은 현 성산읍 고성리에 있었다. 그러나 이 읍성은 정의현의 동쪽에 치우쳐 있었으므로 행정의 중심 지역으로는 적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의읍성의 이설 논의는 읍성이 마련된 직후부터 비롯되기 시작하였다. 정의읍성(당시는 지금의 성산읍 고성리에 위치)의 위치가 정의현의 동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정의현에 합속된 호아현(狐兒顯)·홍로현(洪爐縣)에서는 거리가 3식(약 90리)이나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이곳 백성의 관아 왕래, 공사(公事)의 지대(支待)와 목장 고찰 등의 일에 많은 폐단이 야기되고 있었다.</p> <p>정의현성을 진사리로 이설하는 것이 결정된 것은 1422년(세종 4) 12월이다. 정의현성을 이설하고 도안무사 정간은 배추에게 명하여 기(記)를 쓰도록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당시 성의 축성과 규모를 알 수 있다. 도안무사 정간은 병조의 공문에 의거하여 삼읍 백성들로 하여금 부역케 하였으며, 책임 감독관으로는 제주판관 최치렴을 임명하였다.</p> <p>성의 축조는 1423년(세종 5) 1월 9일에 시작하여 1월 13일에 완성을 하여 불과 5일만에 낙성을 보았으니, 이 당시 동원된 삼읍 백성의 수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성의 규모는 주위가 2,520척이고 높이는 13척이었다. 그 후 정의읍성의 규모는 성의 주위가 2,986척으로 확대되고 있다.</p> <p>동서남 3문 외에 여침 180개가 시설되어 있었다. 또한 성의 축성지 선정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우물의 경우, 정의읍성에는 생수가 본래부터 없었다. 그래서 빗물은 담아두는 우물을 2곳에 마련하였으며, 이 우물이 마를 경우는 성의 남쪽 2리쯤에 있는 대천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의 일부와 남문·서문이 복원되어 있다.</p>	
탐구문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정의읍성의 보존 및 복원 상황은 어떠한가? 2. 성산읍 고성리에서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 3. 정의읍성 내의 옛 기관들의 위치와 기능은 무엇인가? 4. 정의읍성의 자취를 따라가 봅시다. 	
비고		


자료번호	화북진성(禾北鎭城)	
4		
소재지	제주시 화북 1동 1770번지 (옛 화북초등학교, 현재 화북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재 지정 여부	제주도 기념물 제56호	
사진자료		
내용	<p>제주시 화북 1동 1770번지에 남아 있는 방어유적으로 숙종 4년(1678) 겨울에 지방관인 최관 목사가 진영을 설치하여 둘레에 성을 쌓고 조방장을 두어 지켰던 곳이다. 축성 당시 성의 둘레는 606자, 높이 12자였고, 동쪽과 서쪽 방향으로 두 개의 성문이 있었다. 그 중 서쪽 성문은 포구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성 안에는 군기고와 객사, 북쪽 성 위에는 망양정(望洋亭)이 있었다. 그 중 객사는 환풍정(喚風亭)이라고도 하였는데, 숙종 25년(1699)에 남지훈 목사가 지었고, 현종 14년(1848)에 장인식 목사가 이를 개건하고 상량문을 지었다고 하나 남아 있지 않다. 이 화북진에는 조방장 1인, 치총 2인, 방군 92명, 사후선 1척이 있었다. 그 뒤 화북초등학교(1926~1971)로 사용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 지금은 마을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p> <p>현재 이 성의 형태를 보면, 석축으로 제주의 현무암을 거친다듬하여 쌓았고, 궁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북쪽의 외곽은 바닷물이 닿는 곳까지 성벽이 이어져 있으며, 내벽은 현재 매립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기단석은 자연석 지반 위에 놓여 그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성터의 규모는 높이 4.3m, 폭 1.5m, 길이 80m이다.</p>	
탐구문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화북진성의 보존 및 복원 상황은 어떠한가? 2. 화북진성을 쌓은 이유와 기능 및 지리적인 조건은 어떠한가? 3. 화북진성의 자취를 따라가 봅시다. 	
비고		


자료번호	조천진성(朝天鎭城)	
5		
소재지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2690	
문화재 지정 여부	비지정	
사진자료		
내용	<p>조천진성은 둘레가 428자, 높이가 9자 였으며, 3면이 바다로 막혀서 한 곳만이 통할 수 있었다. 9개의 진성 중 가장 작은 성이었다. 성 안에는 조천관, 주방과 마굿간, 군기고 등이 있었고, 동성 위에는 연북정이 있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 연북정은 곧 객사이며, 선조 23년(1590) 이옥 목사에 의해 성이 중창되면서 쌍벽루(雙碧樓)라 편액했던 것을, 선조 32년(1599) 성윤목 목사가 다시 중수하고 연북정(戀北亭)으로 고쳐 편액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광무 4년(1900)에 제주에 온 봉세관 강봉헌에 의해 진사 10칸이 폐지되었다고도 한다.</p> <p>정조 5년(1781)에 제주에 순무어사로 왔다가 돌아가 복명한 朴天衡의 書啓 내용에는, "鎭 터가 바다 속으로 쑥 들어가 있어 배가 출항하는 데에 아주 편리하다. 그러므로 진상물종을 실은 배는 대부분 이 진에서 출항하고 육지에서 들어오는 선박도 대부분 이 곳에 도착하여 정박하므로, 섬안의 요로가 된다. 그러나 성 안에는 우물이 없고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도 없어서 외적이 침입했을 때에 성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였다.</p> <p>조천관이 언제 세워졌는지에 대해 상세히 전해주는 문헌기록은 없다. 본디 조천이란 말은 천자를 배알한다는 뜻이고 관은 객사를 뜻한다. 관리의 주재, 숙박소인 것이다 그리고 예로부터 조천관은 화북포와 함께 제주도의 관문이었다. 관문은 국경 또는 요해지에 설치되어 통행인을 감시하는 곳이다.</p> <p>을묘년 이후부터는 사선이 마음대로 출입하였는데, 섬 안에서 부역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가 이따금 사선을 타고 물으로 달아나기 때문에 조천과 별도 두 포구에서만 출항을 허락하고, 출항하는 날에는 목사 휘하의 군관 1인이 장부를 가지고 대조하면 점검하는데, 이를 출선기라 하였다. 비록 사람 한 사람, 말 한 필이라 할지라도 몰래 숨어서 나갈 수가 없다. 또 성을 쌓아 방호소를 설치하였는데, 성의 둘레는 430여 자이고 높이는 10자이다. 우물은 없고 동문만이 있을 뿐인데 문 위에는 망루가 있다. 바닷물을 둘러서 호가 되게 하였으며, 방수하는 제도는 애월과 같다.</p>	
탐구문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조천진성의 보존 및 복원 상황은 어떠한가? 2. 조천진성을 쌓은 이유와 기능 및 지리적인 조건은 어떠한가? 3. 조천진성의 자취를 따라가 봅시다. 	
비고		


자료번호	별방진성(別方鎭城)	
6		
소재지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3354 (해안도로변)	
문화재 지정 여부	제주도 기념물 제24호	
사진자료		
내용	<p>『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목(濟州牧) 완방조』에는 "별방성은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2,390자이고, 높이는 7자이다. 정덕(正德) 경오 즉 중종 5년(1510)에 장림 목사가 이 땅이 우도로 왜선이 가까이 델 수 있는 곳이라 하여 성을 쌓고 김녕방호소를 이곳으로 옮기어 별방이라 이름하였다."고 하였다. 석축으로 둘레 2,390척, 높이 7척이고, 타첩 139개, 격대 7개, 동·서·남 삼문이 있었는데 모두 1칸의 초루가 있었다. 성 안에는 진사(3칸), 객사(3칸), 공수(3칸), 사령방(2칸)과 특별히 대변청이 있었고, 군기고, 별고가 있어서 도내 九鎭 중 巨鎭이었다.</p> <p>朴天衡의 書啓 내용에는 "동쪽과 북쪽이 바다에 임하였고 성 안은 화북이나 조천에 비해 조금 넓으며 동·서·남에 세 문과 성 안에 두 우물이 있으나 포구의 공간이 몹시 좁고 뾰족 나온 돌 모서리가 창같이 날카로워 배를 정박할 수가 없다. 햇불을 비치해 경보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성을 설치하여 방어하는 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닌 듯하다."고 하였다.</p> <p>병력은 조방장 1인, 치총 4인, 성정군 510명, 유직군 148명, 서기 15명, 소관 봉수대 2개소, 연대 3개소에 따른 별장 30인, 봉군 84명, 동후선 1척이 있었다. 성은 지형적으로 남쪽은 높고 북쪽은 낮은 둘레 950m의 타원형 성곽이다. 동문과 서문 자리에는 양쪽으로 이미 민가가 들어섰고, 남문 자리에는 웅성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다. 격대는 서문과 남문 사이에 2개, 남문과 동문 사이 1개가 남아 있고, 동문과 서문 사이 해안으로 4개가 있었으나 대부분 허물어져서 동쪽 끝 격대 1개가 남아 있다. 1996년에 남쪽 성곽 일부는 보수하였다. 그러나 도내 9진(鎭) 중에는 비교적 성곽이 많이 남아 있어 옛 축성법과 규모를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이다.</p>	
탐구문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별방진성의 보존 및 복원 상황은 어떠한가? 2. 별방진성을 쌓은 이유와 기능 및 지리적인 조건은 어떠한가? 3. 별방진성의 자취를 따라가 봅시다. 	
비고		


자료번호	수산진성(水山鎭城)	
7		
소재지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579-1, 580번지 (현재 수산초등학교 울타리)	
문화재 지정 여부	비지정	
사진자료		
내용	<p>수산성은 명월, 별방, 서귀, 동해, 애월 등 도내에 있는 그 밖의 방호성이 1510년에 축성되었으니 이 성이 축성된 것은 이보다 70년이나 앞선 일이며, 차귀성이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진 오늘날 현존하는 방호소성으로 가장 오래된 성이다. 현재 수산성의 유허는 수산초등학교 울타리가 되어 있지만 어느 방호소보다 성폭이 넓고 동서문이 홍여문으로 축조되어 있었으며, 당시 석조건축술의 진가를 짐작하게 한다. 성의 내부에는 병사 및 객사가 여러 곳에 있었고 해방 직전까지도 민가가 있었다. 성의 둘레는 1164척이고 성의 높이는 16척이었다. 성의 중간 지점에 샘물이 있어서 근래에도 그 샘물을 인근 주민들이 음료수로 이용했었다.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제주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임한 장림목사의 제주방어절목 중 조천관포, 김녕포, 도근포, 애월포, 수산포, 차귀포, 동해포 등의 9개 포구 모두 적선이 기박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미 방호소가 설치되었고, 그 중에서 수산방호소와 차귀방호소는 특별히 축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수산성은 여타의 성보다 앞서 축성돼 서쪽의 차귀성과 함께 동쪽으로부터 침입해 오는 왜구를 막기 위하여 최일선 요지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다.</p> <p>중종 5년(1510) 장림목사에 의해 진성으로 활용되었으나, 선조 30년(1597)에 목사 이경록에 의해 방호소가 성산으로 옮겨지면서 일시 폐성된 바 있었으나 2년도 채 못된 선조 32년에 목사 성윤문에 의해 다시 수산방호소로 옮겨졌다. 지금의 수산고 정문은 학교가 설립되면서 개설된 것이다. 당시 동문이 있었던 곳은 학교 밀감원으로, 서문이 있었던 곳은 학교 관사가 있다. 성곽은 일부 파손된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둘레는 489m, 성너비 3.3~5.3m, 성높이 3.5~5.3m이고 성곽의 형태는 거의 정방형에 가까우며 성의 서북면 모퉁이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m 가량의 격대가 남아있다. 동서문의 넓이는 약 10m 정도였으며, 동서문은 홍여문이었으며 서문에는 누각이 세워졌던 것으로 되어 있다.</p>	
탐구문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수산진성의 보존 및 복원 상황은 어떠한가? 2. 수산진성을 쌓은 이유와 기능 및 지리적인 조건은 어떠한가? 3. 수산진성의 자취를 따라가 봅시다. 	
비고		


자료번호	서귀진성(西歸鎭城)	
8		
소재지	서귀포시 서귀동 713~717번지 일대 (서귀초등학교 동쪽 해안)	
문화재 지정 여부	제주도 기념물 제55호	
사진자료		
내용	<p>서귀포의 경우. 산남 그것도 정의, 대정현의 경계점에 위치해 있었기에 방어가 어려움이 따랐고 상대적으로 외침의 수난은 더 가중되었는데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세워진 것이 '서귀진성'이다. 서귀진의 모습은 탐라순력도의 서귀조점(西歸操點)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이 그림은 1702년(숙종 28년)에 만들어졌다. 그림을 살펴보면 서귀진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 타원형으로 축성이 되어 있고 동·서쪽에 성문이 있으며, 성내에는 병기고, 객사, 창고 등 여덟 채의 건물이 있으나, 병기고만 지붕이 기와로 덮여 있을 뿐 나머지 일곱 채는 모두 새로 덮여 있다. 성문 밖 서북쪽에는 활 쏘는 연습장인 사장이 있었다. 탐라지(1653년간) 정의 성곽 . 방호소편에는 『서귀성은 돌로 쌓아 있으며 주위가 825척 5촌, 높이 12척, 성장 1명 있다. 서귀방호소는 서귀포에 있으며 동성(東城)에는 객사, 별창, 군기고, 사장이 있다. 정방연의 물을 끌어다가 동성 안에 작은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가두고 남는 물은 서성(西城)밖으로 흘려 보냈는데, 영차와 여사 각 1인씩 근무하였다.』 제주목사 이원조(1841~43)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에는 『서귀성은 본래 홍로천 위에 있었으나, 1590년(선조 23년) 목사 이 옥(李 沃)에 의해 이곳으로 옮겨졌으며, 성은 정의현 서쪽 70리에 있고, 성 둘레는 825척, 높이 12척이며, 서쪽과 남쪽에 성문이 있고 성안에는 객사, 별창, 군기고, 사장이 있다. 조방장 1명, 지총 1명, 방군 70명과 사후선 1척이 있다.』 고 기록되어 있다.</p> <p>현재의 서귀성 위치는 '술동산'이라 불리는 곳 동쪽 지역인 서귀동 717번지이다. 한·일합방 초기까지만 하여도 이 곳에서 주민들을 다스렸으며, 환상(환곡)을 나눠주기도 하였다. 커다란 기와집 3채가 있었으며 죄인을 가둬두는 곳도 별도 있었고, 건물 입구에는 문이 있었으며, 이 문이 있었던 곳을 '성문거리'라고 했다. 1906년(광무 10년) 서귀진이 일본에 의해 폐지가 되면서 서귀순사분과소(파출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현재 서귀성 터로 추측되는 서귀동 717번지(제일교회) 일대에는 당시 성벽이나 또는 건물에 사용했음직한 돌 몇 개만이 남아 있을 뿐이지만, 서귀성터로 추정되는 717번지경내 동산에 서서 보면, 서귀포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어, 서귀성이 정의현과 대정현을 연결하는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p>	
탐구문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서귀진성의 보존 상황과 복원 계획은 어떠한가? 2. 서귀진성을 쌓은 이유와 기능 및 지리적인 조건은 어떠한가? 	
비고		

자료번호	모슬진성(慕瑟鎭城)	
9		
소재지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항구식당 부근)	
문화재 지정 여부	비지정	
사진자료		
내용	<p>모슬진성의 위치는 모슬포 동부두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현 항구식당 부근이 아닌가 싶다. 모슬진성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모슬포 방호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성은 암석으로 된 섬위에 있었고, 3면이 바다로 막혀 있어서 북(동)면만이 육지와 통하였다. 성안에는 물이 없고 성 밖에 신령수(神靈水), 즉 '신영물'이 있었다. 모슬진성의 위치는 대정현성에서 남쪽으로 10리 지점이며, 석성(石城)으로 높이는 12척, 둘레는 315척에서 후에 조금 증가되어 335척이다. 동(東) 혹은 북문(北門)만 있었으며, 성안에는 객사와 군기고 등이 있었다. 이 모슬진성은 1678년(숙종 4)에 동해방호소를 이 곳으로 옮기면서 설치된 것이다.</p>	
탐구문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모슬진성의 보존 상황은 어떠한가? 2. 모슬진성을 쌓은 이유와 기능 및 지리적인 조건은 어떠한가? 	
비고		

자료번호	차귀진성(遮歸鎭城)	
10		
소재지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2228번지	
문화재 지정 여부	비지정	
사진자료		
내용	<p>차귀진성은 둘레가 1,190자, 높이가 10자였으며, 동쪽과 서쪽에 각각 문이 있었고 문 위에 망루가 있었다. 성 안에는 객사·군기고 등이 있었다.</p> <p>원래 이 차귀진성은 고려 충렬왕 때에 목마장이 설치된 뒤 고려말까지 중국 원나라에서 마축을 관리하기 위해 아막(阿幕)을 설치하고 축성하였던 곳이며,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효종 3년(1652)에 이원지 목사가 조정에 아뢰어 진을 설치하고 여수(旅帥)를 두었었다. 그 후 숙종 원년(1675)에는 여수를 혁파하고 조방장을 두었으며, 숙종 32년(1706)에는 송정규 목사가 조방장을 만호로 승격시켰으나 숙종 42년(1706)에 황귀하 목사가 다시 조방장으로 환원시켰다.</p> <p>그런데 朴天衡의 書啓 내용에는, "바다 어귀와의 거리가 3, 4리쯤 되며 축성은 가장 완전하며 형 무너질 것 같지 않으나 그 진 터를 살펴보면 바다 어귀의 요해지가 아니다. 또 선박들이 들어와서 정박할 만한 곳이 없고 황벽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들판에 진을 설치하여 방수하는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으므로 과거에 어사가 여러 차례 혁파하기를 건의한 적이 있으나 연혁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p> <p>따라서 차귀진성은 지형적 입지조건으로 볼 때 수산성과 함께 평야형의 특징을 갖춘 성으로서 해안형과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는 방어 유적 자료가 될 것이다.</p>	
탐구문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차귀진성의 보존 상황은 어떠한가? 2. 차귀진성을 쌓은 이유와 기능 및 지리적인 조건은 어떠한가? 	
비고		

자료번호	명월진성(明月鎭城)	
11		
소재지	제주도 기념물 제29호	
문화재 지정 여부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 동명리	
사진자료		
내용	<p>명월포는 고려 원종 11년(1270)에 삼별초의 별장 이문경이 관군을 진압하여 탐라를 점령할 때 상륙하였던 곳이고, 공민왕 23년(1374)에도 제주에 있는 몽고인 목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최영 장군이 이곳으로 상륙하여 난을 진압하고 돌아간 곳이다. 이곳에는 원래 성이 없었으나 조선 중종 5년(1510) 장림 목사는 비양도가 가까이 있으므로 왜구 침공이 쉬운 곳이라 하여 木城으로 축조하였는데, 그 후 선조 25년(1592) 이경록 목사가 석성으로 개축한 것이 오늘날의 성곽으로, 둘레는 3,020척, 높이가 8척으로 타첩 123, 격대 7개가 있었으며, 동·서·남문에는 1칸씩 초루가 있었다.</p> <p>朴天衡의 書啓 내용에는 “서북쪽이 바다에 임하였고 진 앞에는 배를 정박할 곳이 없으나 진의 서쪽 3리쯤에 獨浦가 있어서 어선이나 상선이 와서 정박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또 제주와 대정 사이에 위치하여 토지가 비옥하고 魚採가 풍부하여 9진 중 으뜸이다. 성지가 광활하고 백성들이 부유하며 샘물과 창고도 있어서 충분히 자급할 수 있으므로 서남쪽 巨鎭 중의 하나”라고 하여 제주의 9진 중 명월진만이 모든 구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였다.</p> <p>제주목의 서쪽에 있는 큰 진이므로 진사, 객사, 사령방, 공수, 군기고, 도청, 진고, 창대청, 진술청, 창고 4동이 있었다. 병력은 만호 1인, 취종 4인, 수솔군 82명, 성정군 330명, 유직군 99명, 진사 22명, 서기 30명 외에 소관 봉수대 2개소, 연대 7개소이므로 별장 54인, 봉군 132명이 있었다. 해안에는 수전소도 있어서 관육선과 노젓는 군사 103명이 배속되어 있었다.</p> <p>지금 보존되고 있는 성벽은 동문과 남문 사이 120m의 외벽 성석(城石)이 남아있고 그 사이 격대 3개도 윗부분은 허물어져 자취만이 있다. 옹성은 동문에 외벽만이 남아있다.</p>	
탐구문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명월진성의 보존 및 복원 상황은 어떠한가? 2. 명월진성을 쌓은 이유와 기능 및 지리적인 조건은 어떠한가? 3. 명월진성의 자취를 따라가 보시다. 	
비고		

자료번호	애월진성(涯月鎭城)	
12		
소재지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1736번지 (현재 애월초등학교 울타리)	
문화재 지정 여부	비지정	
사진자료		
내용	<p>애월현은 조선조에 들어와서 태종 16년(1416)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3읍으로 개편 정립되면서 신촌현, 함덕현, 김녕현, 귀일현, 고내현, 광지현, 귀덕현, 명월현과 함께 본읍에 귀속되며, 세종 19년 (1437) 에는 제주방어를 위한 3성 9진이 설치되었는데, 방호소를 애월포에 두고 또 연대를 두었다.</p> <p>애월진성은 둘레가 549자, 높이가 8자였으며, 남쪽과 서쪽에 문이 있었다. 성 안에는 객사과 군기고 등이 있었고 문 위에는 초루가 있었다. 그런데 이 애월진성은 원래 고려 원종 때 삼별초가 들어와서 관군을 방어하기 위하여 木城으로 쌓았던 것을 선조 14년(1581) 목사 김태정이 애월 木城 안에 있던 방호소를 지금의 애월포 연안으로 이전·축조하였는데 이것이 지금의 애월성이다.</p> <p>朴天衡의 書啓 내용에는 “북면이 바다에 임하였고 포구의 배를 정박하는 곳은 가장 평온하고 장애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육지에 오는 배들이 화북이나 조천을 향해 들어오다가 풍세를 잃으면 가끔 이곳에 와서 정박하므로 요해지라 할 만하다. 그러나 성 안이 낮고 좁으며 또 우물과 저장한 양식이 없어서 외적이 침입하였을 때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p> <p>여기에는 전선 1척을 두었고, 배에는 격군 180명, 사수 9명, 포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방호소안에는 또 무기를 넣어두고 군기고가 있어 흑각궁 14장, 향각궁 5장, 교자궁 36장, 장전 45장, 편전 87부령, 창 10간, 조총 5문 등 여러 가지 무기가 보관되어 있었다 한다.</p> <p>현재 애월진성의 성곽은 대부분 없어졌지만 북측 성벽은 바다와 접하여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眉石, 銃眼, 廻廊道, 女牆 등이 남아 있어 당시 해안성의 방어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남아 있는 성곽의 길이는 80m, 높이가 6m30cm 가량이다.</p>	
탐구문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애월진성의 보존 및 복원 상황은 어떠한가? 2. 애월진성을 쌓은 이유와 기능 및 지리적인 조건은 어떠한가? 3. 애월진성의 자취를 따라가 보시다. 	
비고		

자료번호	환해장성(環海長城)	
13		
소재지	제주도 일원	
문화재 지정 여부	제주도기념물 제49호	
사진자료		
내용	<p>제주도 섬 주위에는 賊船이 접안할 수 있는 곳이 많다. 그러므로 적을 막기 위하여 해안선의 접안할 수 있는 곳을 돌아가면서 城을 쌓았으나 이를 環海長城이라 한다.</p> <p>기록에 의하면 고려 원종 11년에 진도에 있는 삼별초의 퇴로를 막기 위하여 영암부사 김수와 장군 고여림을 제주로 보내어 環海로 성을 쌓도록 하였다.</p> <p>하지만 그들이 제주에 머물기는 불과 3개월이었으므로 이러한 거대한 축성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오히려 삼별초가 그 후 2년 반을 이곳에서 활동하였으므로 삼별초들이 외부로의 침공을 막기 위하여 축성했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p> <p>그 후 조선조에 와서도 왜구의 침범이 빈번하였으므로 계속하여 보수, 축성하였으며 가까운 기록에는 현종 11년(1845) 6월에 영국 선박이 우도에 정박하여 섬에 작은 하안기를 세우고 1개월 동안이나 삼읍의 연안을 측량하므로 목사 권직이 크게 놀라 馬兵과 銃手를 총동원하여 만일의 변에 대비하였고, 그 해 겨울 도민을 총동원하여 환해장성을 수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p> <p>지금 도내 해안가에 남아 있는 성지는 바로 이때의 자취이고 지금 비교적 원형대로 남아있는 곳은 제주시 화북동과 애월읍 고내리 서쪽 해안가 등이다.</p>	
탐구문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환해장성의 보존 및 복원 상황은 어떠한가? 2. 환해장성을 쌓은 이유와 기능 및 지리적인 조건은 어떠한가? 3. 환해장성을 찾아 봅시다. 	
비고		

V. 결론 및 제언

지역적 사고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지역은 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조직의 한 부분 집단이다. 지역적 사고는 한 시기의 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 집단이 전체 사회 속에서 독자적 전통과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면서 자율적인 삶을 누리려는 이념적 지향을 말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향토사 학습은 지역화 교육과정의 정신, 자기 고장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 고취, 지방자치 시대에 알맞은 인간의 육성 등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행히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현장의 교사들에게 지역화 학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공급해줌으로써 향토사 학습을 돕고 있다.

그러나 3·4학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화 학습에서 향토사 학습은 미흡한편이다. 많은 교사들이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주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수업하기를 힘들어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교사들이 향토학습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여러 과정, 즉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한 학습요소의 추출과 그에 따른 학습 주제 및 장소의 선정,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및 적용, 학습안내를 위한 자료 수집 등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제약과 정보 수집의 한계성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초등학교 교사가 많은 교과를 가르치는 부담감 속에서 향토사 학습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떨어져 향토사 학습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향토사 학습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향토사 교육은 학생이 살고 있는 향토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례를 찾아 학습함으로써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요구하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점과 일치하며, 역사적 학습의 탐구와 태도가 길러지고 역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또 학생 자신의 향토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생동감 있게 배움으로써 자기 향토를 이해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느끼며, 더 나아가 자기 향토

의 문제점까지 발견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엿볼 수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향토사 학습에 있어서 학교의 현실과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장학습을 통한 향토사 학습 자료의 지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과정으로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7차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문화재 관련부분을 살펴보고 이론적 배경으로서 향토문화재와 현장학습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곽의 기원과 특징을 살펴본 후 문헌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도 성곽의 기원과 특징을 3읍성·9진성·환해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향토자료를 적용할 수 있는 관련단원 및 학습요소를 추출하고, 지도목표를 설정하여 지도안 및 지도 자료를 제작해 보았다.

본고에서 제시한 조선시대의 군사방어시설의 지도방안은 다만 가능성을 전제로 시범적으로 접근해 본 것에 불과하며 또한 학교 여건상 실제로 적용해 보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며 실제로 적용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학습이 항상 모든 조건이 완벽한 상태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사의 자세가 갖춰졌다면 현장학습을 통한 향토사 학습은 성공적일 것이다. 아울러 본고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교사 개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향토사 지도 방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강동우(1997), “경주지역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사회과 지역화 학습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강시영(2001), 「사회과 탐구 지도 자료 아름다운 제주도(4-1)」, 한국교육출판.
- 강창렬(2001), “향토 문화재 활용을 통한 국사 학습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영호(1997), “아동의 흥미에 기초한 향토사 수업모형의 구안 및 적용”,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空軍 第 8546 部隊(1996), 「이런디 알았수과」, 나우인쇄출판.
- 교육인적자원부(2002),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사회(6-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2), 「사회 6-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동진·박찬식(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도.
- 김명철, http://www.jcaf.or.kr/life_culture/pdf/2/02_52.pdf
- 김종환(1997), “문제해결학습 원리에 따른 초등학교 향토사 학습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남제주군(1996), 「南濟州郡의 文化遺蹟」, 제주대학교박물관.
- 문화재청(2000), 「문화재 교육의 이론·방법 및 실제」, 다원.
- 박화자(2001), “주제접근법을 통한 향토사 교재의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반영환(1999), 「한국의 성곽」, 대원사.
- 반영환(2000), 「한국의 성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邊昇奎(1992), 「濟州島略史」, 제주문화.
- 북제주군(1998), 「北濟州郡의 文化遺蹟 (I), (II)」, 제주대학교박물관.
- 사회과 교육 연구(2003), 제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 송춘영(1990), “국사교육에 있어서 향토사 (鄉土史) 교재의 지도방안”, 역사교육논집 13권.

- 신성기(1991), “국사교육에서 주제접근법에 의한 향토사(郷土史) 학습지도 방안”, 역사교육논집 16권.
- 양도필(2002), “초등학교 제주향토사 교육에서 인터넷 활용방안”,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영희(2002),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향토 이해를 위한 현장학습 코스의 개발”, 석사학위논문,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권(2004), 「제주 역사 기행」, 한겨레신문사.
- 이영희(1996), “향토 사료를 활용한 사회과 수업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정광중(1999), “초등사회과를 위한 현장학습 코스의 개발”, 초등사회과교육 제11집, 한국초등사회과교육학회.
- 제주도(1998), 「濟州道の 文化財(增補版)」,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2002), 사회과 지역화 학습 지도자료 「아름다운 제주도」, 태명인쇄사.
- 제주도교육연구원(1996), 「郷土史教育資料」, 태명인쇄사.
- 제주도교육청(1995), 「우리 고장 현장학습 프로그램」, 태명인쇄사.
- 제주도교육청(2003), 「사회과 탐구 아름다운 제주도(4-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제주도제주시교육청(1999), 「즐거운 현장 체험학습」, 태화인쇄사.
- 제주시(1992), 「濟州市의 文化遺蹟」, 제주대학교박물관.
- 제주시(2002), 「耽羅巡歷圖」, 제주시청문화체육과.
- 제주시(1996), 「濟州市의 옛터」, 제주대학교박물관.
- 차용걸(2003), 「한국의 성곽」, 눈빛.
- 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1995), 「제주의 문화유산」, 탐라인.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of Defensive Facilities in Jeju Province in the Joseon Dynasty

Jang Jae-hun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Gweon IN-hyeok

The emergency of full-scale local autonomy has drawn growing attention to local cultural assets, and localized curricula are already one of prerequisites in post-industrial society. To comply with the fashion of the day, the elementary curricula put stress on local cultural assets as part of efforts to push ahead with localized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lve into how local history should be educated through field trips and using learning materials on fortresses, one of the military defensive facilities in the Joseon Dynasty, as those facilities and natural monuments occupied the largest portion of local cultural assets materials in Jeju Island.

The current 7th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a were analyzed to find out how they dealt with cultural assets, and theories on local cultural assets and field trip were reviewed to lay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study.

After th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fortresses were discussed, literature concerned was analyzed to find out the origin and unique features of fortresses in Jeju Island, including three eup-seongs, nine jin-seongs and Hwanhae-jangseong.

Finally, to which units the selected local history materials could be

applied was determined, and relevant learning elements and learning objectives were selected. In addition, lesson plans and teaching materials were prepared.

It's just attempted in this stud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it's possible to give a lesson about military defensive facilities in the Joseon Dynasty, since school circumstances actually made it difficult to do that. If past defensive facilities are educated, some unexpected incidents might take place. But education cannot be conducted exactly as intended in perfect circumstances, and as long as teachers are ready to cope with any unexpected situations, local history education through field trips will be successful. And if individual teachers try to provide more creative education, they will come up with more efficient teaching methods.